

3
2020

VOL. 285

한인뉴스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Galaxy S20 Ultra



www.GalaxyLaunchPack.com

Customer Service: 0800-112-8888 (bebas pulsa) (021) 5699-7777 (hunting)



SamsungID



SamsungIndonesia



Samsung Indonesia



Samsung Indonesia



www.samsung.com/ID

온 가족의 청정 라이프 웅진코웨이로 시작하세요

OMBAK CHP-7310R

냉온 RO 정수기
월 Rp. 500,000 / 36개월

제품 · 서비스 · 가격 문의

- ☎ (021) 5086 0419
- ☎ 0812 8825 6357
- ✉ cowayid@coway.id
- 📷 coway_id



STORM AP-1516D

15 평형 공기청정기
월 Rp. 270,000 / 36개월

대한민국 NO.1 브랜드¹⁾
코웨이를 인도네시아²⁾에서도
만나보세요.

한국산업 브랜드파워 1위

- ✓ 정수기 부문 21년 연속 1위
- ✓ 공기청정기 부문 17년 연속 1위



36개월³⁾ 동안
한 잔의 물, 한 숨의 공기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 ✓ 2개월 1회 방문 서비스
- ✓ 제품 설치 · 위생 관리 서비스
- ✓ 필터 교체 · AS 서비스

heart
service

건강한 삶을 설계하는
코웨이 헬스플래너,
한국인 판매인을 모집합니다.

헬스플래너 지원 문의

- ✓ cowayid@coway.id
- ✓ (021) 5086 0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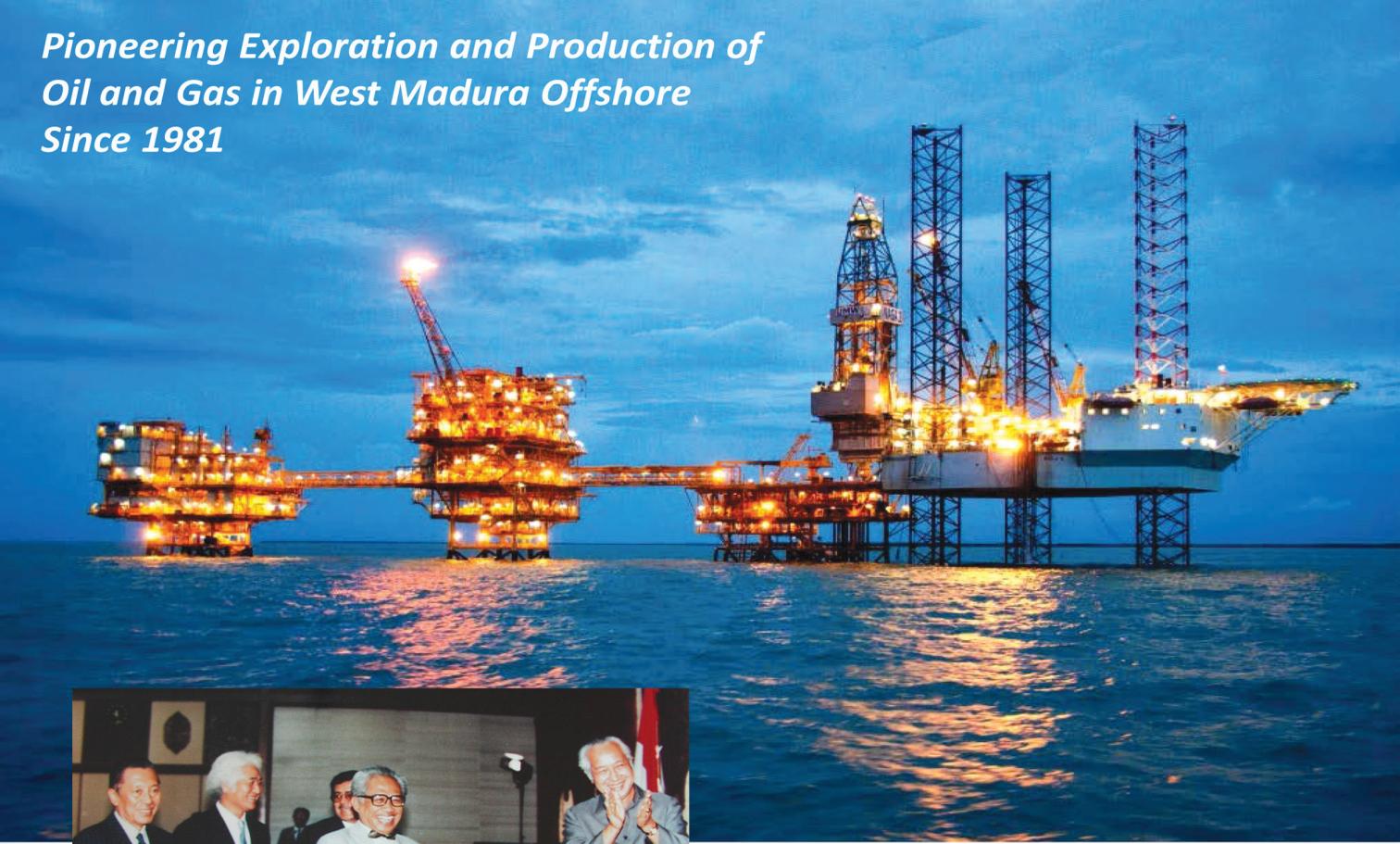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Pioneering Exploration and Production of
Oil and Gas in West Madura Offshore
Since 1981*



대한민국 해외자원개발의 선구자!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유전개발 업체로
인도네시아 마두라광구 탐사,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KODECO ENERGY

Talavera Office Park 10th fl. Jl. Letjen TB Simatupang No. 22-26
Jakarta 12430 T +62 21 2765 1559 E admin@kodeco.co



홍매화 (제주, 한림공원)

contents

2020. 03. 통권 285호

- 07 인도네시아 라이프 No.3 <황유경>
- 08 신성철칼럼- 동부갈리만탄을 가다
- 11 인도네시아한인들은 어떻게 살아왔나(5) <조연숙>
- 14 2020년도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이사회 정기총회
- 16 코로나 바이러스19 동포안전 간담회
- 18 이코노미 인사이트 <황준규>
- 21 JIKS 소식
- 22 비상약 <편집국>
- 26 그는 누구? PT. COSMAX INDONESIA 정민경법인장
- 28 배동선 작가의 인도네시아 현대사-반란의 시대
- 32 뉴스브리핑 <자타르타 경제신문>
- 36 꽃청춘 프로젝트 2탄 <김승욱>
- 38 자카르타 맛집탐방 - Lac Mei Che <주윤지>
- 40 나 바 수 <민선희>
- 44 행복에세이 <서미숙>
- 46 춘설을 말한다 <김우재>
- 48 Good bye, 인도네시아 <구상준>
- 50 여성연구자 선을 넘다 <한인니문화연구원>
- 52 인도네시아 법률 해설(283) <이승민>
- 54 박물관 헤리티지 <이수진>
- 56 회망나눔 음악회
- 57 A SYTAR IS BORN <구정희>
- 58 '자카르타 역사 연구팀' 출범에 부쳐 <사공경>
- 63 Pancoran 사람들 No.15 <편집국>
- 66 생활정보

월간 한인뉴스 3 2020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김문환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수진, 이영미 표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힘 키우고 꿈 키우고



한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몸과 마음이 모두 위축되어 있는 요즘 철저한 위생 관리와 바이러스를 거뜰히 이겨낼 수 있는 기초 체력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디지털 세대를 사는 아이들은 꿀물 같은 여가 시간이 생겨도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만지작거리기 십상입니다. 운동량이 부족해 면역력이 약해진 아이들에게 건전하고 에너지 넘치는 시간을 선물하고 싶어 올림피아드 리틀 야구팀을 방문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국기(國技)인 배드민턴과 축구에 비해 비인기 종목인 야구를 인도네시아에서 전문적으로 가르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소년 체육 교실에서 오랫동안 내공을 쌓은 안재완 감독님과 '한국 야구의 전설' 김성래 한화 이글스 코치님의 자제분이자 전직 청소년 야구선수 출신인 김동건 코치님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본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 리틀 야구팀은 들썩 짝을 지어 캐치볼을 잡으며 민첩성을 높이는 훈련을 했습니다. 다음 순서로 하체 발달과 순발력을 기르기 위해 내외야 수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일을 향해 싸라!"는 코치님들의 외침을 시작으로 타격 연습까지 마친 아이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가볍게 경기를 가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유소년 야구팀과의 비정기 시합에서 아이들이 각자 맡은 포지션에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건 이런 체계적인 연습 덕분입니다.



아직 유니폼이 험렁한 꼬맹이 선수부터, 작은 체구로 류현진 같은 괴물 투구를 뿜내는 유망주, 홈런보다는 연습 후 먹는 아이스크림 먹방을 꿈꾸는 친구까지... 나이와 실력은 제각각이지만 휴대전화나 게임기가 아닌 야구 헬멧과 야구장갑을 끼고 방망이를 휘두르는 모습이 더없이 행복해 보입니다. 열정적인 코칭으로 아이들의 꿈도 키우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야구 교실이었습니니다. 좁은 책상을 벗어나 흠뻑 흘린 땀이 뻥 유니폼을 입고 운동장을 달리는 아이들의 꿈이 뭉게구름처럼 부풀길 바랍니다.



[르포] “인도네시아 신수도 예정지 동부갈리만탄을 가다”

신수도, 올해 7월 착공 2024년 완공… 갈리만탄 한인회도 설립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한인사 편찬위원

[편집자주] 이 글은 ‘인도네시아 한인100년사’에 기록될 사료로 사용됩니다. 한인뉴스 애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글을 읽어보시고 추가로 넣을 부분이 있으면, 한인뉴스 (haninnewsinni@gmail.com) 또는 글쓴이 (dailyindo@gmail.com)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스팽간 국제공항

2020년 2월 24일. 자카르타에서 여객기로 2시간 만에 만난 동부갈리만탄 주(州) 발릭빠판 시(市) 스팅간 국제공항. 2014년 완공한 스팅간 국제공항터미널은 연간 1천명의 여객을 소화할 수 있는 현대식 건물로 방문객들을 환영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깨끗하고 소득이 높은 도시로 알려진 발릭빠판은 한 번쯤 들어 본 듯한 도시다. 시내에서 스피드보트를 타고 20분 거리에 50여년 전 코린도 (당시 인니동화) 목재사업부가 설립돼 지금도 합판을 생산하고 상업용 조림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발릭빠판은 축복받은 도시다.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발릭빠판은 1897년 석유가 발견되자 식민지배 하던 네덜란드가 유전을 개발하고 광업중심지와 무역항으로 키운다. 이어 천연림이 펼쳐진 동부갈

리만탄은 천연목 벌채 사업과 합판사업, 석탄광산과 오일팜 사업 등 자원사업이 번창하면서 아직도 인도네시아에서 소득이 높은 도시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8월 조코위 대통령이 동부갈리만탄 주(州) 빠나잠 빠세르 우따라 군(郡)과 꾸따이 까르파느 가라 군에 신수도 (행정수도)를 확정 발표하면서 신수도 예정 이전지역 인근에 있는 발릭빠판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신수도 이전 계획이 발표되고, 메가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곳 한인사회도 활기를 찾고 있다. 2019년 12월 ‘갈리만탄 한인회’가 설립됐다. 나성문 갈리만탄 한인회 창립 발기인 대표에 따르면 9명의 발기인 창립총회를 열어 초대회장에 정성화 씨를 추대했다. 코린도 그룹에서 32년간 근무한 정 회장은 2016년 현지에 목재 관련 사업체인 (주)ESE 하쿠나마타타를 세웠다. 갈리만탄 지역에는 250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인회원은 20여 명이다. 갈리만탄 한인회 본부가 있는 발릭빠판 시 인근에는 터줏대감으로 자리잡고 있는 코린도 목재사업부와 삼탄의 인도네시아법인 키데코(PT. KIDECO JAYA AGUNG),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 빠르따미니 정유공장 고도화 프로젝트를 수주한 현대엔지니어링 주재원 등 동포 5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스뱅크 국제공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국인이 설립한 영어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깔리만판 크리스천 국제학교(KICS)’가 있다. 아담한 학교 교정에 들어서니 학생들이 밝은 미소와 함께 “안녕하세요?” 라고 우리를 반갑게 맞았다. 2007년 이곳에 KICS를 세운 이성현 선교사는 “신수도가 완공되면 학생 수가 늘어날 것”이라며, “지금은 유치원부터 중학교 학생까지 공부하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고등학교를 지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원래 저지대인 자카르타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고층건물 급증 등의 영향으로 매년 평균 7.5cm 씩 지반이 내려앉는 바람에 도시 면적의 40%가 해수면보다 낮아졌으며, 우기 때는 도시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홍수가 발생한다. 아울러 교통지옥이라고 불릴 만큼 심각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등으로 수도로서 기능이 상실한 상태다.

인도양에서 태평양 사이에 길게 펼쳐진 인도네시아의 중심은 깔리만판(보르네오)이다.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 집권 시기부터 중부깔리만판 주 빨랑까라야 지역으로 수도 이전을 계획했다. 이후 수하르토 대통령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알려진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이

결국 일냈다. 조코위 대통령이 확정된 신수도 이전 메가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서부에 편중된 지역개발을 지양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2040년까지 인도네시아를 5대 경제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의 출발점이다.

신수도 이전지역을 한눈에 보려면 떠나잠 빠세르 우따라 군(郡) 스빠꾸 면(面)에 있는 조림회사 ITCI (PT ITCI Hutani Manunggal) 사업장으로 가야한다. 발릭빠반 시에서 북쪽, 사마린다로 가는 국도 38km 지점까지 자동차로 1시간 정도 달린 후, 스빠꾸 방면으로 좌회전, 곳곳이 파손된 지방도로를 1시간 반 정도 달리면 조림회사 ITCI 사업장이 보인다. 신수도 발표 후 화물차 통행이 급증하고 있는 스빠꾸로 향하는 지방도로에는 오일 팜 농장이 주변에 펼쳐졌고 지대가 높은 지역으로 들어서자, 드문드문 깔리만판 원주민인 다약족의 주택들이 눈에 띄었다.

신수도 예정지를 방문하기 전날 만났던 수르얀토 발릭빠반 환경국장은 “수도 예정지는 정부가 토지매매를 금지시켰지만, 주변지역과 발릭빠반 시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자연스런 현상이다”라며, 이 지역 부동산 가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토지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귀띔했다.



ITCI 조립지역은 뿌라보위 수비안또 국방장관의 가족이 사업권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입구부터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됐다. 어려운 절차를 거쳐 지방정부와 ITCI 사의 허가를 받아, 조꼬위 대통령이 방문해 내려다본 전망대에 설 수 있었다. 이곳에서 시원하게 펼쳐진 시야로 신수도 예정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멀리 오른쪽에 코린도 사업장과 중앙에 신수도 청사가 들어갈 지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멀리 발릭빠판 만(灣)과 수평선이 펼쳐진다.

수르얀또 환경국장은 “조꼬위 대통령이 신수도 완공 1년을 앞두고 현장에 집무실을 만들어 2024년에는 목표한 대로 신수도로 이전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신수도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항간의 의구심을 불식시켰다. 신수도는 스마트도시(Smart City), 녹색도시(Green City)로 조성된다. 최대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겠다는 원칙에 따라 부지 주변의 녹지를 보전할 방침이다.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에너지원으



로 바이오매스 등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동부갈리만판 주도 사마린다 시와 발릭빠판 시를 연결하는 연장 99.3km 고속도로는 동부갈리만판을 인도네시아 중심지로 발전시킬 대동맥이 될 것이며, 발릭빠판과 사마린다는 신수도를 지원하는 거점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미래를 책임지게 될 신수도는 올해 7월 착공,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한인들은 어떻게 살아왔나(5)

기억하라 2009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국장, 한인사편찬위원

[편집자 주] <인도네시아 한인들은 어떻게 살아왔나 5>는 한인뉴스 2009년 1월호부터 12월호까지 12권에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2009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시 활발했지만 지금은 없어진 단체와 활동을 기록했고, 2020년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아직 설립되지 않았던 단체와 활동은 앞으로 2019년 기준으로 쓰는 글에 기록하겠습니다. 이번 글에 언급된 단체나 활동과 관련해 추가하고 싶은 사진이나 자료를 가지고 계신 독자 여러분은 한인뉴스(haninnewsinni@gmail.com) 또는 글쓴이(dailyindo@gmail.com)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사회는 2009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가수 ‘비’ 공연, 신종플루와 타미플루, 자카르타 호텔 폭탄테러, 김수환 추기경 선종,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서거, 서만수 목사 소천, 광복절 체육대회, 포스코 진출, 이명박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 유도요노 대통령 제주도 방문 등이 2009년을 채운 사건들이다.

2009년에 인도네시아에서 교민들의 활동을 위축시킨 사건은 신종플루와 자카르타 호텔 폭탄테러이다.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 첫 번째 신종플루 사망자는 2009년 6월에 발생했고, 9월 3일 기준으로 25개주에서 확진자 1,097명 사망자 10명이 발생했다. 당시 한국 외교통상부는 해외국민을 위해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를 해외 대사관에 지원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도 한인뉴스를 통해 타미플루 20인분 200정을 비치하고 있다며, 다만 의사 처방이 필요하므로 우선 현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현지 병원에 약이 없을 경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종플루 검사가 가능하고 치료제를 보유한 병원 이름과 연락처를 제시했다.

한편 자카르타 중심가 꾸닝안 지역에 위치한 메리어트 호텔과 리츠칼튼 호텔에서 폭탄테러가 7

월17일 발생해 도신우 한국모텔협회 회장이 경상을 입었다. 도 회장은 8월에 예정됐던 문화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자카르타를 방문 중이었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취임 후 치안이 안정되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폭탄테러가 발생하면서 대사관에서는 외국계 호텔, 레스토랑, 유흥업소, 쇼핑몰 등 외국인 출입이 많은 장소에 가는 것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2009년 신년호에 인사말에서, 김호영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는 “(2008년은) 에너지 및 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은 물론, 투자가 증대되었고, 이천 도예전·숙명가야금 공연·태권도 시범행사 등을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역동성을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한인사회의 위상을 한껏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에 일어난 세계적인 금융경제 위기로 인하여 적지 않은 교민 기업인들이 고초를 겪었고 지금도 어려움에 놓여 계십니다” 라고 2009년 초 상황을 묘사했다.

이 시기에는 2008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문화교류가 활발했고 교민들도 그만큼 바쁘게 보냈다. 2009년 1월호 첫 번째 소식은 전년도 12월16일



왼쪽 : 이명박 대통령이 박희만 시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오래 : 이명박 대통령은 PT, BPG 방문 중 한인 기업협회 대표 10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명박 대통령, 교민 봉제업체 PT, BPG 방문

이명박 대통령은 인니주방문 중 한인봉제기업인 PT. BULSANA PERBA, GLOBAL(이하 PT. BPG)을 방문하여 한국 직원과 현지인 직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박희만 시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둘러 PT, BPG의 주력 품목인 스포츠웨어 많은 관심을 보였고 시찰 중 현지인 근로자들에게 격려 또한 아끼지 않았고 한국인, 현지인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피력했다.

공장을 둘러본 후 한인 최위원에 대표 10여명과 약 30분간 인니 경제 전반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마치고 장관의 기념촬영을 하는 시간. 또한 기념품에 게 가리 사진 촬영을 못한 직원에게 "사진 찍었어요?"라고 재미 어린 장난감 모습을 보였다.

PT, BPG는 1967년 3월 12일에 설립되어 현재 한국 직원 25명, 현지인 직원 600명이 근무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PT, BPG는 1967년 3월 12일에 설립되어 현재 한국 직원 25명, 현지인 직원 600명이 근무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PT, BPG는 1967년 3월 12일에 설립되어 현재 한국 직원 25명, 현지인 직원 600명이 근무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일본 보우웬즈에서 다양한 BRAND 개발에 신속히 대처하여 DELIVER가 요구되고 소비자들의 구매욕이 생길 수 있는 제품을 위해 ONE-STOP ONLINE SYSTEM을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바이어를 상담하는 다른 기업들과 달리 PT, BPG의 주력 품목인 스포츠웨어 많은 관심을 보여 경쟁력 있는 가격의 납기로 많은 ORDER를 수주하고 있다. 또한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어 GLOBAL 시대에 걸맞게 기존 외주공장의 납기기준에서 떨어져서 주문 후 45 DAYS DELIVERY로 LEAD TIME를 단축시켜 바이어의 제조부담을 줄임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인도네시아 내 봉제회사 중 최초로 ISO 9001-2000 인증을 취득하였고 WRAP COMPLIANCE (국제 공인 봉제 제조업체자격) 인증 획득으로 GLOBAL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자체 LAB TEST 시설도 확보하고 있다. PT, BPG는 모든 종류의 의류는 물론 SPORTS 웨어를 특히 서브 브랜드인 아이리에서 차용하는 신소재 제품을 매년 개발하여 직접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MANCHESTER CITY, STORKE CITY, LYBERTON, WOLVES 등) 주목 받고 있는 봉제회사이다.

열린 ‘2008년 한인회 송년의 밤’ 보도로, 예년과 달리 마리 엘카 빵에스뚜 무역부 장관과 소피아 안 와난디 경총 회장이 축하영상 메시지를 보냈고, 인도네시아 외교부 밴드 공연, 매직쇼, 반동한사모 공연 등 인도네시아인 공연이 추가됐다. 한인 합창단 ‘해피 자카르타’, ‘색소폰 동호회’, ‘전국노래자랑-자카르타 편’ 등 예년처럼 한인단체 공연과 행운권 추첨을 위한 찬조상품도 풍성했다.

2009년 3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가 인도네시아를 국민방문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재도약하게 되었고, 같은 해 6월에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내외가 제주도를 방문했다. 포스코가 인도네시아 국영 크라카타우스틸사와 합의를 체결하고 포스코-크라카타우스틸 일관제철소 건설을 시작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이 1400톤급 인도네시아 잠수함 창정비사업을 수주해 12월에 개량된 잠수함을 인도했다.

2009년은 별들이 진 시기이다. 인도네시아 한인성당인 자카르타성요셉성당에서는 2월 16일 김수환 추기경 선종 추모미사가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 종파 구분 없이 300여 명의 교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5월 23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고, 한국대사관은 관내 접견실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 조문객을 맞이했다. 이어 8월 18일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했고 대사관 1층에 조문소를 설치하고 조문객을 맞았다. 9월 18일에는 인도네시아 첫 한인 선교사이자 한인사회 원로 지도자였던 서만수 한인연합교회 목사가 소천했다. 서 목사는 1971년 인도네시아에서 첫 선교를 시작해 첫 한인교회와 한인학교를 설립했다.

2009년은 본격적인 한류 상업공연이 시작된 해로 인도네시아를 찾은 한국 공연자들이 늘면서 교민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인뉴스 제153호 (2009, 3월호 중)

가수 ‘비’가 12월 3일 자카르타 망가두아 JITEC에서 ‘레전드 오브 레이니즘’ 아시아 투어의 일환으로 단독 콘서트를 열었고 교민과 인도네시아인 3,500명 이상이 즐겼다.

이처럼 양국간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가루다항공은 인천-자카르타노선에 8월 2일 신규 취항했다.

2009년 한인뉴스에는 지방한인회 활동이 두드러졌다. 2008년 보고르한인회 송년골프대회, 반동한인회 체육대회 및 송년의 밤 행사, 중부자바 한인회 송년 골프대회 및 한인의 밤 등이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한인뉴스 2009년 신년호에 실렸다. 이후에도 반동과 중부자바 한인회 골프대회 소식과 수라바야 한글학교 어린이날 행사 등이 열렸다. 또 연말에는 재인도네시아한인회가 12월 2일에 지방한인회장들을 초청해 골프대회를 열고 친목을 다졌다.

한인회 주최로 한인이 모두 참여하는 연중 행사는 광복절 기념행사와 송년회인데, 2009년에도 광복절 기념 골프대회, 광복절 기념식, 교민 체육대회 등이 열렸다.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체육관과 운동장에서는 가족단위 또는 개인단위로



자카르타

자카르타 호텔 두 곳에서 폭탄 테러 발생

지난 7월 17일 자카르타의 메리다 호텔과 리즈 힐튼 호텔에서 오전 폭발물이 터져 9명이 숨지고 한국인 1명 등 5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메리다 호텔은 지난 2000년에도 차량을 이용한 폭탄 테러가 발생해 12명이 숨졌었다.

이런 사건의 배후는 국제테러단체인 알 카에다의 동남아 조직인 제아 이슬라미야(JEI)가 지목되었다. 수실로 발방 유대크노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이런 테러조직의 소행"이라며 "법정을 제회하고 지향한 사람들을 제재해 피해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부상자도 있었는데 8월 자카르타에서 문화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방문중인 호텔빌딩 3층 도난범으로 총아리와 발명기 등에 약간의 상해를 입었다.

지난 2005년 이후 주목할 만한 테러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인도네시아에서 또다시 테러도 수렁에는 폭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제 사회의 비난도 높아졌다.

케빈 리드 호주 총리는 이번 사건을 야만적인 테러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말인술을 벌일 실랑이에 세우기 위해 다같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호주를 비롯해 영국과 뉴질랜드 등은 인도네시아의 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국민에게 당부했으며 인도네시아 연방외교부에서는 주요 호텔과 쇼핑몰 등에 대한 보안조치를 강화했다.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도 테러당일 동포인민을 통해 추가 테러 가능성이 있으니 외국인 출몰시절인 특히 외국계호텔 및 레스토랑, 유흥업소, 쇼핑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또한 대대난은 폭탄 테러시 행동 강령도 동포인민에게도 발표했다.

8월 15



대사관, 타미플루 비치

2009.9.29(수) 한계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 환자는 25세대에 걸쳐 1137명이 발생하여 10명이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국민들도 개인 위생에 특히 주의하라고, 실제 50도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또는 구토·설사 등 인플루엔자와 증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즉시 상담하여 조기에 발견 진장을 지키야 할 것이다.

한국 외교통상부에서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으나 치료제를 구할 수 없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자 우선 최소 분량의 타미플루를 각 공관에 지원했다. 제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도 타미플루 20인분 200정을 비치하고 우즈미 향후 감염 확산을 막고 인감증자수를 고쳐줘야 추가 지원될 계획이다.

대사관 비치 타미플루는 의외적인 타미플루 복용 부작용 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이 우려되므로 만약 적을 경우 의사 처방전이 있거나 현지 의료기관에서 타미플루를 구할 수 없거나 치료에 어려움이 겪을 때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다.

타미플루 처방 - 투약, 권리지리 가능 병원

| 병원명 | 연락처 |
|---------------------|------------------------|
| RSP Sulianti Saroso | 021 650-6508, ext.1761 |
| RS Parahababan | 021 489-1708, ext.644 |
| RSPAD Gator Subroto | 021 344-1006, ext.5100 |

신종 인플루엔자 진단 및 처방 가능 병원

| 병원명 | 연락처 |
|--------------------|--------------|
| RS Pondok Indah | 021 755-7525 |
| RS Medistra | 021 521-0200 |
| RS Pusat Pertamina | 021 721-9777 |
| RS MMC | 021 523-3435 |

한계 자카르타에는 타미플루 처방, 투약, 권리지리 가능한 병원들 국가거점병원인 RSP Sulianti Saroso(650-6508, ext.1761), RSP Parahababan(489-1708, ext.644), RSPAD Gator Subroto(344-1006, ext.5100)이다.

또한 RS Pondok Indah, RS Medistra, RS Pusat Pertamina, RS MMC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하며, 필요시 국가거점병원으로 이동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담당: 김용환 임무관(0811-852-4460)
Tel: 520-1915, Fax: 525-4159



자카르타

비자카르타 공연 환경 속 성공적으로 개최

'비'의 자카르타 공연이 성황리 개최되었다.

지난 12월 3일 오후 자카르타 방카푸아에 위치한 지티(JITEC) 공연장에는 '비'의 연극 '비'를 소개하기 위해 '비'의 연극 콘서트 공연이 열렸다. 공연은 시작시간 보다 30분 늦은 8시 30분경 '비'가 무대에 오르며 '정지'를 시작하며 오랜 기다림을 담은 관중의 환호를 받았다. 나쁜 날씨, T.O, 테이너 등 20여 명이 넘는 관객이 2시간 10분 동안 이어졌고 화려하고 화려한 퍼포먼스에 관객들의 미인 준비에는 '비'가 이적되는 야생과 무용 준비는 계속 이어졌다.

관객들은 열광적인 시골비엔카페로 인연 서민들 두르며 추위를 날리기까지 이어졌다.

한편 콘서트를 주관한 W Productions의 연극 '비'의 자카르타 콘서트는 많은 관심을 보여 한인사회와 교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8월 16, 2009년 12

제158호 (8월호)

다채로운 경기가 열렸고, JIKS어린이합창단과 한바패 공연도 이어졌다.

한국부인회는 3월에 제15대 흥미숙 회장 취임 후 한인기업 홍보책자 It's Korea 2호 발간, 외국인 대상 한국음식 요리경연대회, 취미활동반, 효도한마당잔치, 친선골프대회 등을 알차게 치렀다. 또 인도네시아대학교(UI) '한국문화의 날' 과 국제부인회 바자회 등 인도네시아 행사에 한국음식과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도 꾸준히 했다.

운동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체육협회 설립이 논의됐고, 한인마라톤동호회(회장 최병우)도 생겼다. 동문회와 향후회는 매월 또는 격월로 골프모임을 갖고, 규모가 큰 모임에서는 가족까지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열기도 했다.

한국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과 군수지원함 천지함이 2008년 12월 8일 자카르타 탄중쁘리옥항에 입항했을 때는 김호영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 한인회 임원, 인도네시아 해군 고위 관계자와 교민 700여 명이 참석한 환영식이 열렸다. 해군은 교민들에게 함상을 공개하고 비빔밥으로 대접했다.

제160호 (10월호)

또 110여 명의 해군 공연단이 9일 JIKS를 방문해서 군악대 연주, 사물놀이 공연, 의장대 및 태권도 시범 등 친선공연을 펼치고 한국문화를 소개해 한인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이슬람은 담배는 허용하지만 술은 금지하므로 수입절차를 다소 까다롭게 했고 세율도 높게 책정했다. 결국 시중에 유통되는 소주는 밀수입된 것이 많았는데, 2009년 6월에 인도네시아 세관이 탄중쁘리옥 항구에서 소주 13만병을 밀반입하려던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을 적발하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이를 크게 보도해 소주 밀수입 문제가 공론화됐다. 대사관 관계자들과 한식당 대표들이 모여서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음에도 소주 통관 문제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난제다.

2009년은 한인 원로들이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세상을 떠났고, 포스코와 대우해양 조선, 엔터테인먼트산업, IT산업 등과 함께 새로운 세대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다. 인도네시아 교민들이 동호회 수준으로 하던 문화활동이 성숙해지면서 한국 대사관과 문화원, 한인회, 한인단체 등 행사에 교민 참여가 활발했던 시기기도 하다.

2020년도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이사회 정기총회



2020년 2월 6일,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박재한)는 웨라톤 그랜드 자카르타 간다리아시티 호텔에서 한인회의 명예고문, 고문, 수석부회장, 부회장, 자문위원, 이사(총 재적이사회원 152명 중 참석 70명, 위임장 제출 이사회원 21명으로 총 91명)가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이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박재한 한인회 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회장인사, 2019년 한인회 사업 활동 보고와 결산보고,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인도네시아한인100년사 편찬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하였다.

박재한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인회 임원여러분의 다양한 모양의 지지와 성원이 우리 한인회를 건강하고 생기있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투명하고 낭비가 없는 효율적인 한인회가 되기 위해 마음과 귀를 열겠다”고 말하고 “한인 이주10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해인 만큼 ‘한인100년사’의 편찬 및 다양한 행사로 우리가 몰랐던 그 당시를 알게 하고, 어렴풋한 기억들이 정리되고 이로써 우리의 가능성을 확대하고, 관찰하여 연결하는 우리의 성장 로드맵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그동안 정관개정위원회와 제1차 회장단회의를 통해 마련한 정관개정안 및 선거규정 등의 제정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오가며 논의한 끝에 주요 쟁점이 되는 정관개정에 있어서는 다음 회기까지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합의하였다.

특별한 순서로 신성철 편찬위총괄위원이 작년 7월 한인100년사 편찬위원회 출범식을 시작으로 현재 자료 수집과 집필에 이르는 진행과정을 설명하며 ‘인도네시아 한인100년사’가 한인사회와 함께 쓰는 한인역사서임을 밝혔다.



한인회에서 준비한 만찬을 즐기며 이사회 정기총회는 마무리 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 19 동포 안전 간담회



2월 5일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회의실에서 주인니 한국대사관은 동포 안전 간담회를 갖고 인도네시아 당국의 자료(인도네시아 내 확진자 없음)를 발표하고 동포들의 안전 수칙과 비상대책반을 운영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박재한)는 코로나바이러스19의 감염으로부터 한인동포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인도네시아산 /Multi One Plus) 2만장을 비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 19 관련 주인니 대사관 공지 사항 (2.26.)

❖ 인도네시아 발생 현황 ※ 보건부 발표

(infeksi-emerging.kemkes.go.id) 2.24. 기준

- ◆ 확진자 0명
- ◆ 유증상자 136명 접수, 132명 음성, 4명 대기 중
- * 해외 확진환자 10명(싱가포르 1명, 일본 정박 중인 크루즈선 9명)

※ 다만,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은 2월 25일 현재 인니내 확진자 없으며, 지금까지 의심환자는 232명이며 모두 음성이라고 밝힘

❖ 인도네시아 정부 조치 및 동향

- ◆ 인니 외교부는 여행지역안내(Safe Travel) 앱에서 한국을 녹색(안전)에서 노란색(여행주의)으로 상향 조정하였음(2.23.)

- 지역을 구분하여 대구 경북지역은 적색, 그 외 지역은 노란색으로 지정

* 여행지역안내는 녹색(안전)/노란색/주황색/적색(위험)으로 구분되며, 현재 중국 등 13개국이 적색, 홍콩·싱가포르·이탈리아 등 42개국이 노란색으로 지정

- 한국여행 중이거나 향후 한국여행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대구와 경북지역은 방문하지 않기를 권고함

→ 여행주의 권고이며, 한국 여행금지나 출입국 제한조치는 아님

◆ 인니방문 후 일본에서 코로나 19 확진을 받은 일본인 1명의 건강상황

및 이동경로(2.15일 발리입국, 19일 일본 귀국) 확인 중

- 인니 보건당국은 발리방문시 발열체크, 문진표상 이상이 없었으며, 발리 체류 중에도 병원방문 이력도 없어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음

❖ 대사관 공지 사항

-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내원하여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진료 및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2.26.(수) 현재, 한국에 대한 여행제한조치는 없으나, 공항입국시 건강 문진표 작성, 발열체크 등의 검역조치는 시행 중입니다.

- 출입국 제한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인니 외교부, 보건부, 이민청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행사나 장소를 방문하게 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및 치료 자카르타지역 지정 병원

- ① RSPI Dr. Sulianti Saroso(북부자카르타), 021-650-6559
- ② RSU Persahabatan(동부자카르타), 021-2247-2222
- ③ RSPAD Gatot Subroto(중앙자카르타), 021-344-1008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 대사관 당직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운영): +62-811-852-446
- 대사관 영사과(근무시간 중) : +62-21-2967-2580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

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외교부해외안전여행 최신안전소식 사이트 참조 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





"기생충과 흡혈귀" 두번째 이야기 양극화와 능력주의에 대한 단상

글: 황준규 (신한은행 부장)



영화 '기생충'이 지난달 제92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각본상, 국제영화상, 감독상과 더불어 작품상 수상까지 4관왕의 업적을 달성했다. 명실상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영화사에 길이 남을 쾌거를 이룬 감독 및 제작자와 배우들에게 한국인으로서 감사의 마음과 축하의 메시지를 보낸다. 사실, '기생충'이 작년 5월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을 때도 본 칼럼에 '기생충과 흡혈귀'라는 제목으로 다뤄졌던 적이 있었던 터라 금번 수상에 대한 필자의 감회는 남달랐다. 봉준호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영화는 '기생'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공생'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보니 '공생'이라는 화두를 던진 감독의 의도를 '기생충과 흡혈귀'라는 대립구도의 프레임으로 해석했던 사실이 겸연스럽기까지 하다. 이렇듯 '고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본 계급화' 이슈는 현대사회 모든 문제의 케를 뚫는 화두이며 몇번이고 반추에도 풀리지 않는 숙제이다.

필자에게 빈부격차의 문제는 한국에서 보다 인도네시아에서 더 극적으로 다가왔다. 몇해 전 자카르타에 처음 도착한 밤, 필자의 지인이 살고있는 자카르타 시내의 최고급 아파트가 수카르노-하타 공항을 제외하고 필자가 경험한 첫 자카르타의 모습이였다. 놀라웠다, 이전 어느 곳에서도 보지못한 화려함과 고급스러움... 그러나 다음날 아침 마주한 아파트 담벼락 너머의 세상, 더욱 놀라웠다... 자카르타에서는 고급저택과 빈민가를 이동하기 위해 영화에서 처럼 가파른 계단과 터널을 지날 필요도 없다. 사실, 그 높은 담장 하나는 우리나라의 휴전선 보다도 견고하게 계층을 반으로 가르고 있었다. 한인뉴스 독자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인도네시아 최고 부호 4명이 하위 1억명까지의 부를 쥐고 있으며, 이러한 극단적인 빈부격차는 (특히나 중국계를 중심으로 한 부의 독점은) 심각한 인종차별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참고로 5% 미만의 화교들이 인도네시아 80%의 부를 장악하고 있고, 20개의 최상위 대기업 중

18개 기업의 오너가 화교이다) 빈부격차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정치인들의 주요 핵심 공약이며 조코위 대통령 또한 캠페인 당시 큰 공약 중 하나가 빈부격차 해소와 부패방지였으나 아직 이렇다 할 정책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양극화에 대한 (학계에서의) 기존의 분석은 ‘자본’ 과 ‘노동’ 의 대결구도였다. 그 해석의 근거는 자본주의 체제 하 최근 200년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자본수익률이 항상 임금성장률을 웃돌았던바,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속도보다 빠를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물려받은 돈이 많은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엔 아무리 열심히 근로소득을 올린다해도 자산가치 상승에 의한 자본소득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으며 이로인해 자본가와 노동자의 노동자와의 빈부격차는 갈수록 커지며 21세기 새로운 세습자본주의 시대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최근, 양극화 문제에 대한 경제,사회학자들의 해석을보면 능력주의(meritocracy)이 테올로기가 자주 언급된다. ‘능력주의’ 라는 말은 영국의 정치가이자 사회학자인 마이클 영이 1958년에 출간한 <능력주의의 부상>이라는 책에서 귀족주의의 반대말로 만들어낸 것인데 실력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보수가 결정되는



사회현상을 표현하는 말이다. 책에 따르면 실력은 ‘능력과 노력’ 에 따라 결정되며 실력있는 자들은 사회적으로 더 잘 되고 경제적으로 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는 경쟁원리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보편적인 가치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현실은 부유층이나 지식층 자녀들은 더 좋은 교육을 받아 사회 요직에 진출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의 자녀들은 출세의 길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으며 저소득층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가정의 자녀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데다 자극을 받을 기회도 적어 하루하루를 체념하면서 사는 경향이 있고 이 때문에 빈곤의 대물림 현상도 고착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한국은 세계 어느나라 못지않게 능력주의를 예찬해온 나라인데, 이른바 ‘한강의 기적’ 으로 일컬어지는 압축성장의 동력은 바로 능력주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 는 슬로건이 전 국민의 가훈으로 받아들여진 가운데 능력이 오직 학력·학벌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평가되면서 전 국민이 뜨거운 교육열을 보여오지 않았던가. 옥스퍼드대 석학 거슈니 교수는 얼마 전 그의 칼럼에서 한국의 입시 경쟁을 비정상적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는데 상대가 전함을 만들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우리도 전함을 만들고 이를 보고 상대는 또 더 많은 전함을 만드는 ‘냉전 시대의 끝없는 군비 경쟁’ 과 같다는 것이다. 한국 부모들은 ‘다른 집 아이가 사교육으로 더 앞서나갈지도 모른다’ 며 사교육에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이를 본 다른 부모들은 (본인들의 노후 보다는) 더욱 더 자녀 교육에 몰두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리고 그는 좀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에 온다고 주장했는데 서로 경쟁하다 보면 결국 더는 버틸 수 없는 시점이 오며 상대가 겨우 좀 더 버티어서 이기면 자신을 패배자로 여기는 한편 부모가 충분한 능력을 쌓지 못했다며 원망하고 자기혐오에 빠질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이런 의견들에 딱히 반박하기 힘들다는 사실이 더욱 씁쓸함을 남긴다.

여하튼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세상이 부의 세습의 시대라는 것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필자는 강도높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능력 세습의 세상”을 독식을 하고 있는 상위 계층사람들이 마냥 부럽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능력의 세습은 행복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을 거라 믿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물리적 자본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지만 인간자본은 사람을 속박시키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예전에는 부잣집 아들은 공장을 물려 받아 직접 노동할 필요가 없었으나 지금은 유산을 공장이나 농장보다는 사교육을 통한 고강도의 트레이닝으로 물려주기 때문이다. 땅을 물려 받으면 땅을 착취하며 살면되지만 지금의 엘리트들은 자기 자신이 자산이기 때문에 전문직 등에 종사하며 본인 자신을 착취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불현듯 십여년전의 기억이 소환된다. 경기이남 지역에서 농사를 짓던 부모님은 서울로 유학온 아들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농사 짓던 눈을 곳감 빼먹듯이 야금야금 팔았던 반면, 공부에 소질이 없어 고향에 남아 땅붙이며 살던 친구들은 시간이 지난 후 개발 붐이 일며 모두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IMF당시 퇴직 후 새로 시작한 사업도 실패로 끝나고 다섯평 남짓한 가게를 운영하셨던 사무실 근처 국밥집 사장님이야기다. 그렇다, 역시 인생 모르는 일이고 정답도 없다. 그래서 다들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공연과 함께하는 JIKS 초등 졸업

자 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교장 김윤기)는 2020년 1월 22일 수요일, 나래홀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내빈이 함께한 가운데 6학년 57명학생들의 제41회 졸업식을 가졌다. 직스 초등과정은 1980년 제1회 졸업생 4명이 시작으로, 2019학년도 현재 총 267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졸업식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졸업을 축하하는 아롬바공연, 인니전통무용, 발레, K-POP 댄스, 뮤지컬, 합창, 바이올린 연주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된 1부 꿈나무 발표회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꿈나무 발표회가 끝나자 졸업생들의 6년 동안 학교생활을 담은 학생들의 영상작품으로 2부 졸업식 시작을 알렸다. 김윤기 교장은 졸업생 한 명 한 명의 가족들과 함께 무대로 올라온 졸업생에게 졸업장을 직접 수여하고 사진을 촬영하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축사를 전한 김종민 주인도네시아 총영사는 큰 꿈을 갖고 도전하는 직스인이 되기를 당부하며 졸업과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였다.

재학생을 대표하여 5학년 학생들은 선배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선배들이 베푼 사랑과 친절을 본받아 후배들을 돌보겠다는 마음을 담은 영상편지를 보냈다. 이어 졸업생들은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말과 더불어 앞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의 영상으로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졸업을 축하하며 6학년 선생님들과 모든 학생들이 무대에서 손을 맞잡고 그동안의 추억을 되새기며 앞으로 한 발짝씩 더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함께 노래를 부르며 졸업식을 마쳤다.

직스 초등과정은 한국교육과정과 수준별 영어, PBL, 인니어, 특기적성 계발을 위한 ASSP와 동아리 활동, 수영, 태권도 등의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가까운 마트나 약국에서 쉽게 구입하는 비상약



감기약: TOLAK ANGIN

(non-drowsy 졸음방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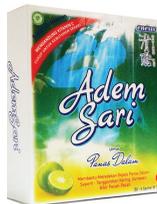
한국의 쌍화탕을 연상케 하는 시럽형태, 꿀, 생강, 민트의 천연 성분으로 전연령대 가능



기침: BISOLVON/ 진해거담제, 기관지염
Ibu dan Anak
VICKS FORMULA/ 물약



종합감기약: TOLAK ANGIN, STOP COLD, KONIDIN, NEOZEP, DECOLSIN, NELCO SPECIAL OBH COMBI PLUS, VIKCS VAPORUB



인후통: ORODIN ANTISEPTIC THROAT SPRAY
편도선염, 목 통증 및 구강내염증:
LARUTAN PENYEGAR, EFISOL,
HAU FUNG SAN, LO HAN QUO,
ADEM SARI



비타민제: REDOXON, CDR, ALINAMIN-F, VITACIMIN, xON CE



두통: PARAMEX
발열 및 두통: PANADOL CAPLET EXTRA, PANADOL BIRU, DUMIN PARACETAMOL



THERMOREX ANAK



BINTANG TOEDJOE NO.16



**통증과 소염을 위한
연고 및 패치형 파스:**

KOYO(발열파스), SALONPAS
(냉온파스)
통증과 소염을 위한 크림과 젤
타입: SALONPAS CREAM,
SALONPAS GEL, HOT N CREAM,
COUNTERPAIN, COUNTERPAIN
COOL, SALONPAS LINIMENT,
AMMELTZ YOKOYOKO
오일과 크림타입의 바르는 외
CAP KAPAK(오일), KAYU PUTIH
(오일), TIGER BALM(크림),
FRESH CARE(오일)
FELDENE 관절염과 같은 고통스러
운 염증 상태의 증상을 완화
비 스테로이드 성 항염증제



진통제 및 해열제:
PONSTAN, BIOGESIC



화상연고: BIOPLACENTON



구충제:
COMBANTRIN PIRANTEL PAMOAT



제산제(위장계통):
MYLANTA(액상 및 알약)



복통 및 정장제:
TAI PIN SAN, SEIROGAN, NORIT



지사제: DIAPET/DIATABS



ORALIT 설사로 인한 탈수를 완화



요도염, 방광염:
URISPAS



안약(눈세척 및 충혈): ROHTO TEARS, VISINE TEARS, INSTO MOIST, INSTO REGULAR, VISINE ORIGINAL(눈세척)
ROHTO, ROHTO COOL(충혈)



눈세정: Y-RINS



소독용 알코올: ALCOHOL 70%



자상 및 상처소독:
BETADINE, RIVANOL



반창고: HANSAPLAST



거즈: KASA HIDROFIL



손세정제:
ANTIS, DETTOL



상처에 바르는 연고:
MADECASSOL
외상 또는 외과 적 상처



FUCIDIN 접촉 성 피부염 및 감염
된 상처 / 이차 피부 감염



멀미약: ANTIMO



페니실린 항생제:
AMOXICILLIN



목 아플 때: COOLING 5,
STREPSILS, TROCHES MEJI



코막힘: VICKS INHALER,
ILIADIN



햇빛 알레지(야외활동):
CALAREX



치통 완화: OBAT SAKIT GIGI
CAP BURUNG KAKAK TUA



(벌레물려) 가려움증:
CALADINE



벼룩에 물렸을 때: PEDITOX



관장제: MICROLAX GEL



변비약: DULCOLAX



임신테스트기: SENSTIF



무좀약: CANESTEN CREAM,
FUNGIDERM, DAKTARIN



모기 퇴치제 :
BAYGON, HIT, VAPE, AUTAN
(로션) SOFFEL



PT. Cosmax Indonesia 정민경 법인장

2020년 2월 20일 한인뉴스 편집팀은 새롭게 도약한 글로벌 화장품 연구·개발·생산회사 PT. Cosmax Indonesia (Cilandak Timur 소재 MKT 사무실) 정민경 법인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코스맥스 소개 (인도네시아에 정착까지의 스토리)

코스맥스는 1992년 창업 이래 화장품 연구개발 및 위탁생산(ODM)을 중심으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부분까지 사업을 확장하여 2019년 2조 150억원의 매출액으로 화장품 ODM 산업의 전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2004년 업계 최초 중국 진출 이래, 전 세계 1위 화장품 회사인 로레알사와의 긴밀한 협업결과, 2012년 12월 로레알의 자카르타 공장을 인수하여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업체로는 인도네시아 최초 진출이었기에, 제조허가 및 CGMP 등 인허가 취득이 쉽지 않았으나,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접근으로 보건부와 식약처 등을 직접 방문하여 인허가를 취득하였고, 2016년에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MUI Halal 인증도 취득하였습니다. 이렇듯 현장위주의 접근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전국 10여개 지방 도시에 소비자 통신원을 운영하고, 신제품에 대한 사전 소비자 테스트를 시행하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립제품인 립크림을 개발하여 누계 1,520만 개를 판매하였으며, 또한 2018년에 개발한 쿠션 파운데이션은 누계 550만 개 판매하는 등 급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고객사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로컬 화장품 브랜드를 대상으로 Formulation Conference를 처음으로 개최하였고, Research & Innovation Center를 공장에서 영업사무실이 위치한 Cilandak으로 확장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성장하는 화장품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도 확장하였습니다.

- 인도네시아 자생식물 소재를 활용한 천연화장품에 대한 설명

한국의 화장품 기술은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을 만큼 발전하여 전 세계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만, 인도네시아 소비자들만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지화된 소재를 적용한 처방으로 화장품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SK-II의 “피테라”, 시세이도의 “알부틴” 등 세계적으로 알려진 화장품 브랜드의 뒤에는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원료소재가 있기에, 새로운 소재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생물자원이 풍부하나 화장품 원료로 개발하는 연구가 부진하기에 코스맥스 인도네시아와 ITB의 약학대학은, 지난 2월 6일 MOU를 체결하고 공동연구로 자생식물을 소재로 새로운 화장품 원료를 개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바나나 꽃, 열대 차나무 및 시나몬 등 자생식물을



소재로 하는 화장품은 2022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바, 해당 제품이 출시된다면 한국의 기술력과 인도네시아의 소재가 어우러져 세계로 뻗어 나가는 새로운 화장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의 계획 (개인 & 회사)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시장은, 수년에 걸쳐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성장에 발 맞추어 작년 말부터 공장을 증축하고, 연구소 확장 등 연구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뷰티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OBM 사업도 차근차근 준비중으로, 인플루언서를 통한 소비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으로, 2021년 말까지 1조 루피아 매출을 달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한인사회에 하고 싶은 말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사업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화장품과 뷰티에 대한 관심은 눈에 띄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모바일 인터넷 사용이 능숙하며, 새로운 정보를 찾는 밀레니얼세대 및 Z세대 소비자들은 K-Beauty를 위시한 K-Culture에 친숙한바, 한국의 문화에 기반한 다양한 사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인사회에서도 한국문화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 중인 분들이 계신다면, 그리고 그 사업이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사업이라면, 코스맥스 인도네시아가 사업 성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PT. Cosmax Indonesia
(Jl. Raya Bogor, Jakarta Timur)



반란의 시대

지난 호에 이어

1948년 10월 제16여단은 네덜란드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던 깔리만탄과 동인도네시아를 해방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렘봉중령은 이때 빼앗안똥 대위의 도움을 받아 특수부대를 조련하면서 북부 술라웨시 KNIL 출신 병사들을 결집시키려 했다. 렘봉중령은 필리핀을 통해 북부술라웨시를 공격하려 했는데 태평양전쟁 당시 연합국소속 게릴라였던 렘봉 중령이 필리핀을 무대로 활동했던 것이 이런 작전계획을 가능케 했다. 하지만 역시 연합군의 한 축이었던 네덜란드군을 공격하려는 렘봉 중령의 계획을 필리핀의 연합군 사령부가 승인하려 했을 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렘봉중령은 제16여단의 지휘권을 와로우 중령에게 넘기고 자신은 먼저 필리핀으로 출발하려 했으나 1948년 12월 19일 네덜란드군이 제2차 공세를 벌여 공화국군 거점들을 공격해 오는 바람에 오히려 네덜란드군에게 체포되는 신세가 되기도 했다. 그의 불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주권을 이양받은 후에도 여전히 네덜란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북부 술라웨시를 실질적으로 해방시킬 계획을 세웠지만 1950년 1월 베스털링의 APRA 반란을 맞아 그 꿈을 미처 이루지 못하고 반동에서 동료병사들과 함께 반군들에게 사살되고 말았다.

네덜란드군의 2차공세가 계획에 차질을 주었지만 독립전쟁 중에도 KNIL 흡수통합계획은 계속되어 많은 TNI 장교들이 비밀리에 깔리만탄과 술라웨시 각지에 보내졌다. 비록 자치주들이 합주국으로 통합되었지만 현지 KNIL 부대들은 여전히 친네덜란드 성향을 지녔고 합주국 정규군 TNI에

대해서도 대체로 적대적 입장이었으므로 이 작업은 조심스럽게 진행되었고 때로는 비밀을 요하기도 했다. 빼앗안똥 대위의 지휘 아래 위위르, 샘오기, 렉스아네스, 알로 맘부운 같은 현지 청년민병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부술라웨시 TNI 사령부도 설치되었다.

주권이양 초기 동인도네시아의 상황은 태평양전쟁 직후처럼 극도로 불안정했다. 일본이 패망했을 당시 자카르타에서는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수카르노 정부가 구성되었지만 동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외곽 지역엔 정권공백상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 지역은 태평양전쟁이 끝나갈 무렵 일본군 제56 남방함대의 군정이 이루어졌고 일본패망 후엔 1945년부터는 맥아더장군의 연합군이 장악했다. 연합군은 태평양전쟁 중 남서태평양 지역을 점령하면서 비악섬과 모로타이섬에 군사기지를 세워 북부말부꾸에서 술라웨시 앞바다까지를 통제권 안에 넣었고 모로타이 기지로부터 날아오른



1967~1978년의 11년간 북부술라웨시의 주지사를 역임한다.

연합군 전폭기들이 암본, 마나도, 마카사르, 발릭 빠판 등지의 일본군 거점들을 폭격했다. 이 지역엔 전후 연합군 선발대로 호주군이 상륙했고 나중에 네덜란드 민간정부(NICA)에 이 지역 정권을 이양했는데 태평양전쟁 중 호주에서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의 망명정부를 이끌었던 H. 반목 박사가 호주군을 따라 들어와 서부뉴기니의 머라우게에서 이를 총지휘했다. 네덜란드 식민정부가 동인도네시아 지역을 통해 되돌아온 것은 그만큼 네덜란드에 우호적인 지였이었음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인도네시아인들 상당수는 당연히 네덜란드의 귀환을 환영하지 않았으므로 깔리만탄, 술라웨시, 말루꾸 등지에서 봉기가 발생했고 호주군은 네덜란드와 현지인 민족주의 진영 사이에 끼어 곤혹스러워 했다. 게다가 일본군에게 부여한 대부분의 자바와 수마트라의 민족주의자들과는 달리 동인도네시아 지역의 민족주의자들은 일제강점기간동안 지하저항세력이 되어 연합군을 도와 일본과 싸웠음에도 네덜란드군은 코웃음치며 군화발로 짓밟으려 들었으므로 현지인들의 반감은 더욱 사무쳤다.

한편 주권이양 이후 1949년 12월부터 1950년 4월 사이에 동인도네시아 출신 장교들이 대거 자바 외곽도시의 합주국군 선발대 임무를 받아 아흐맛 유누스 모꼬긴타 중령과 뿌뚜헤나가 이끄는 동인도네시아 지역군위원회(KMTIT)를 도왔다 1950년 5월 북부술라웨시-북부말루꾸 사령부(KOMPAS SUMU)가 조직되면서 제16여단은 해체되고 와로우 중령이 KOMPAS-SUMU의 사령관으로 취임한다. 그 전에 공화국 국방부는 펜체 수무알 소령, 다안모곳 소령, 에디 가골라 대위, 삐엣안퉁 대위를 마나도에 보내 네덜란드군 지역사령부로부터 공화국 정규군이 현지 치안업무를 넘겨받고 북부 술라웨시의 KNIL 부대원들을 TNI 정규군에 통합시키는 임무를 수행토록 지시했다.



말루꾸 지역 (모로타이는 맨 위)

한편 네덜란드군은 KMTIT 지역군위원회를 통해 TNI에 합류한 KNIL 출신 전투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고 특히 KNIL 하사관들을 부추겨 읍 와로우 중령의 제16여단 출신 TNI 병력의 도착을 방해하려 했다. 동인도네시아에서의 반TNI 정서조장은 동인도네시아 지역과 깔리만탄을 아우르던 네덜란드군 깔리만탄 지역군사령부(GOB)의 숏보그 대령을 등에 업은 동인도네시아 자치주 검찰총장 크리스 수모킬 박사가 주도했는데 KNIL 부대를 부추겨 암본, 마카사르, 마나도 등지에서 TNI에 대한 반감을 고조시켜 상륙이 임박한 TNI에게 저항하도록 했다. 그들의 목적은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중앙정부로부터 분리된 동인도네시아 독립국가의 성립을 선포하고 마카사르-마나도-암본을 잇는 군사정치적 네트워크를 조직한다는 ‘메타코히 계획’을 확정하려는 것이었다.

숏보그대령은 KNIL 부대출신으로 합주국군에 합류한 병력들이 자바의 TNI 본대가 도착하기 전에 합주국군 내에서 대대 및 중대단위로 독립적으로 자리잡도록 마카사르, 마나도, 암본의 KNIL 병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반TNI 정서를 고취시킨 결과 이들 지역에서 다양한 봉기가 발생했는데



크리스 수모킬 박사

1950년 1월 암본에서 KNIL 출신 병사들의 군사 봉기가 벌어졌고 그해 4월엔 마카사르에서 안디 아지스 대위의 부대가 반란을 일으켰다.

앞서 소개했던 바와 같이 안디 아지스는 동인도네시아 자치주 수꼬와티 대통령의 경호부대에서 근무했었고 3월 30일 막 합주국군으로 편입된 KNIL 부대의 중대장이기도 했다. 안디 아지스는 마나도에서 막 도착한 크리스 수모킬 박사를 숏 보그 대령과 함께 만나 4월 5일 마카사르에서 도착하는 TNI 위랑 대대의 상륙을 막아야 한다는 사주를 받았다. 이미 현지에 합주국군(APRIS)이 조직되었으므로 본토로부터 공화국 정규군 TNI가 굳이 상륙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다. 수모킬 박사는 마카사르의 ‘동인도네시아 독립국가’가 네덜란드의 적극적 지원을 받고 있는 ‘메테코히 계획’에 의거해 인도네시아 합주국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디 아지스는 그들에게 사주받은 대로 TNI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여 4월 5일 마카사르의 헌병막사를 위시한 TNI 장교숙소를 공격했고 선발대로 와 있던 모코긴타 중령과 다른 TNI 장교들을 체포한 후 마카사르 항구를 폐쇄해 H.V. 위랑 소령이 이끄는 위랑 대대의 상륙을 저지했다.

동인도네시아의 분리독립 위기를 진압하기 위해 수카르노 대통령의 명령에 의거해 당시 국방장

관이자 육군중장이었던 술탄 하멩꾸부위노 9세는 합주국군 고위사령관이자 수마트라에서 TNI 합병작업을 지휘한 알렉스 E. 까윌라랑 대령을 1950년 4월 15일 동인도네시아 지역군사령부(KMTIT)로 발령냈다. 까윌라랑 대령은 수하르토 중령의 가루다마따람 여단, 수쁘랍또 수카와티 중령의 브라위자야 부대, 코사시 중령의 실리왕이 부대, 위랑소령의 위랑 대대와 과거 제16여단 출신인 안디 마탈라타 중령의 대대 등의 지원을 받아 술라웨시에서 빠르띠위(Pertiwi) 작전을 전개해 현지 반란을 진압했다. 그러나 그사이 안디 아지스가 투항하여 위랑 대대의 마카사르 입성은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았다. 며칠 후 수라바야로부터 주력부대가 LST 수송선 편으로 마카사르에 상륙했고 그 병력의 위세에 놀려 마카사르에서 KNIL 부대의 영향력은 점차 축소되어 갔다.

마카사르에 도착한 KOMPAS-SUMU 사령관 읍와로우 중령은 당시 국방부 정보사령관이던 줄키플리 루비스 중령에게 직접 요청해 수하르요 소령을 참모장으로 삼고 네덜란드 지역군 사령부로부터 현지치안을 인수인계를 받는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마나도 상륙을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했다.

마카사르-마나도-암본에 새로운 국경선을 그으려던 네덜란드의 시도가 안디 아지스의 반란실패로 벽에 부딪히자 크리스 수모킬 박사는 크게 실망하여 네덜란드군의 B-25 전폭기를 빌려 타고 마나도로 향했다. 그는 북부 술라웨시의 TWAPRO 지도자 마위끄러를 사주해 현지 KNIL 부대의 TNI 합병을 저항하도록 하려 했다. 그러나 비행기가 마빵엇 비행장(지금의 샘 라뚜랑이 공항)에 착륙했을 때 자신은 내리지 않고 수하들만 마나도 시내로 보내 마위끄러를 만나도록 했다. 수모킬 박사는 수완 좋은 선동가였을 뿐 아니라 용의주도한 전략가였으며 동시에 사전에 위험을 감지해내는 조심스러운 촉각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우려했던 대로 그의 수하들은 도중에 청년민병대들에게



Mayor Jenderal TNI-AD Purn. Hein Victor Worang
(Tontalo-Kauditan, 12 Maret 1919 - Jakarta, 3 Februari 1982)
Komandan Batalyon Worang
Gubernur Sulawesi Utara 2 Maret 1967 - 6 Juni 1978
Inspektur Jenderal Pembangunan RI

하인빅터 워랑(Hein Victor Worang)소령은 훗날 육군소장까지 진급했고 1967년 3월부터 1978년6월까지 북부술라웨시 주지사를 지냈다.

체포되었고 위협을 느낀 수모킬은 마빵엇을 이륙해 곧장 암본으로 들어가 4월 25일 남말루꾸공화국(RMS)의 수립을 선포했다. 남말루꾸를 인도네시아 합중국으로부터 분리하는 것뿐 아니라 동인도네시아 자치주로부터도 분리하여 완전한 독립 국가를 수립하려는 것이었다. RMS의 독립선언은 나중에 RMS 망명정부의 제3대 대통령으로 추대되는 마누사마(Ir. Manusama)와 레드베레, 그린베레 특수부대를 포함한 KNIL 부대 2천여 명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수모킬은 이 선언을 통해 요하니스 마누후투를 RMS의 초대 대통령으로, 암본을 RMS의 수도로 정하고 그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해 암본의 친공화국 정당인 독립인도네시아당(PIM) 당수 뷔빨라를 전격 체포했다.

미나하사 KNIL 쿠데타

한편 안디 아지스 반란사건의 소식은 마나도에도 전해졌다. 마나도의 KNIL 부대가 이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안디 아지스 사건 이전인 3월 말에 마나도 남쪽 와네아 지역의 KNIL 예비군 단기지에서 네덜란드군 수비대 사령관이 전체 네

덜란드군 장사병 대표들을 소집하여 가졌던 회합 때문이었다. 이 회의의 목적은 ‘메테코히 계획’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고 동인도네시아에서 TNI가 군사적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으므로 TNI 부대의 미나하사 지역 상륙을 여하히 막아내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를 사주한 쏫보그 대령은 마카사르 사령부의 네덜란드군 장교대표들을 보내 이 회의를 감독했다. 그러나 회의는 당초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당시 북부 술라웨시는 참모본부와 통신, 보급부대 등으로 구성되어 북부셀레베스 KNIL 군사령부의 관할권 아래에 있었다. 이 사령부 직속으로 보병 1개 대대와 KNIL 예비부대, 통신부대, 헌병대 그리고 병참부대가 소속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병사들과 하사관들은 미나하사 지방 토착민 출신들이었고 대대참모에서 소대장까지 각급 단위부대 장교들은 네덜란드 혼혈들이었다.



북부술라웨시 미나하사(Minahasa) 지역

다음호에 계속

2020년 2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인도네시아 기준금리 5.00%→4.75%… “코로나19 사태 고려”

안파라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정책 회의를 통해 작년 10월 이후 4달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페리 와르지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 전망을 감안하고, 국내 경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5.1~5.5%에서 5.0~5.4%로 낮추며, 2021년에 다시 5.2~5.6%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와르지요 총재는 올해 1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4.9%로, 5%대 밑으로 떨어졌다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는 2018년에는 여섯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해 총 1.75%포인트를 올렸고, 2019년에는 7월부터 4달 연속 인하해 총 1.00%포인트를 내렸다.

스리 몰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전날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성장을 억제하고 정부 수익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 본토를 오가는 모든 항공 노선 운항을 중단한 뒤 관광 수입이 급감하고 있으며, 마늘값이 일주일새 70% 급등하는 등 중국산 농산물 수급 제한 우려로 일부 식료품 가격이 들쭉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5.02%로, 정부 목표치 5.30%에 미달했다.

수하리안또 통계청장은 “연간 5%대 경제성장률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이 정도면 여전히 괜찮은 편”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1인당 GDP는 2018년 3천927달러(465만원)에서 2019년 4천175달러(495만원)로 늘었다.

[연합뉴스]

스리 재무장관, 올해 경제성장률 5.3%→4.7% 하향 조정 시사

인도네시아의 스리 몰야니 재무장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의 5.3%에서 4.7%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스리 재무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1~2%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 하락하면 인도네시아의 성장률은 0.3~0.6% 떨어진다” 라고 말하며 “이 상태가 계속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 떨어진다면, 인도네시아의 GDP 성장률 예측도 5.3%에서 최대 4.7%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 라고 언급했다.

스리 재무장관은 이어 “하지만 중국 정부는 최근 가장 타격을 크게 받고 있는 관광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에 3,000억 위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2분기(4~6월)에 중국 경제는 회복될 것” 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일 인도네시아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1~5.5%에서 5.0~5.4%로 하향 조정했다.

바하나 증권사의 사쁘리오 경제학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 기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반기(7~12월)에는 (부족했던) 일용품 및 제조제품의 수요 충족을 위한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는 U자형으로 회복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인도네시아호텔레스토랑협회(PHRI)에 따르면, 발리에서 1월 초부터 2만건 이상의 예약이 취소됐다. 정부는 관광객의 감소를 막기 위해 항공료를 포함한 여행 대금을 할인하도록 항공사와 여행사 등에 요청하고 있다.

부디 교통장관,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수라바야까지 연장

인도네시아 부디 까르야 교통장관은 향후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를 수라바야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 뽀뽀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부디 까르야 교통장관은 23일 란짜예깍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공사 현장을 시찰했다. 부디 까르야 장관은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사업이 성공한다면 초기 계획에 따라 수라바야까지 연장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공사 시찰 현장에는 부디 까르야 교통장관과

함께 줄피끄리 교통부 철도국장, 국영 철도 KAI의 에디 전무이사 등도 함께했다.

부디 장관은 이어 “수백 명의 중국 노동자들이 기술 이전과 함께 공사 진행 중으로 당초 목표로 설정했던 2021년 말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부설 사업은 인도네시아 중국 고속철도사(KCIC)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KCIC에 따르면 공사 진행률은 43.45%, 토지 취득률은 99.96%에 달했다

인도네시아, 한국과 조세조약 개정...4월 합의하나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한국과 협상 중인 조세조약의 개정에 대해 4월에 합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10일자 현지 매체 끈판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재무부 세무국 관계자는 “몇 년 전에 시작된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에서는 배당금에 발생하는 원천 세율을 20%에서 10~15%로, 이자와 로열티(사용료)에 발생하는 원천 세율을 20%에서 10%로, 지점 이익세율을 20%에서 10%로 각각 낮추는 데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무부 재정정책기구(BKF)의 국가세입정책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한국, 일본과의 조세조약의 개정을 목표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의 협상 시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조세조약 개정으로 이중 과세 방지뿐만 아니라 양자의 세무 정보 교환 협력 강화, 투자상의 과세 차별철폐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조세조약은 1988년 11월에 비준, 1990년 1월에 발효되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지난 4일 싱가포르 재무부와도 조세조약 개정에 서명했다.

인도네시아 경제개혁센터 “올해 무역 적자, 수입 감소로 축소...수출도 부진”

인도네시아 싱크탱크 경제개혁센터(CORE)는 올해 무역 적자가 전년의 32억 달러에서 16억~20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자원 및 각종 지지재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12일자 인베스터데일리가 전했다.

CORE의 모하마드 파이살 이사장은 “국내 소비 위축과 제조업 생산 활동 둔화로 수입이 감소해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수출에 대해서도 “팜원유(CPO)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특히 석탄과 천연가스의 가격이 아직 낮기 때문에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지적했다.

그는 “제조업은 20년간 낮은 생산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조업의 국제 수출 시장에서는 0.6%



의 점유율 밖에 차지하지 못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주변 경쟁국에 뒤처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감염의 유행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 수출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부 장관 “인니, 2030년 세계 9위 디지털 경제 대국 될 것”

조니 G 플라떼(Johnny G Plate)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3일 방문 중이던 미국 워싱턴에서 인도네시아가 2030년 세계 9위의 디지털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니 장관은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상호 이해를 목표로 하는 비정부기구(NGO) ‘미국-인도네시아 소사이어티 (USINDO)’가 이날 개최한 파티에서 기조 연설을 했다.

조니 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도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인터넷 이용자 수는 1

억 7,120만 명, 휴대 전화 가입자 수는 3억 5,55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중소기업 2,600만 사가 디지털 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니콘기업(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의 대열에 합류할 예정인 스타트업 기업이 최소 8개사”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5세대(5G) 이동통신 시스템 도입과 디지털 분야의 인재 육성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니 경제계 “코로나19 영향, 올해 무역적자 더욱 확대 전망”우려

인도네시아의 올해 무역적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경제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 수출이 감소할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싱크탱크경제개혁센터(CORE)의 모하마드 파이살 이사장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중국의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라고 말했다. 국영 은행 뱅크 만디리(Mandiri)의 안드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 확산과 세계경제의 침체가 맞물려 인도네시아 수출이 축소, 올해도 무역적자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카딘)의 한디또 상임위원(수출 사업부)은 “코로나19 여파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국내 중소기업에 혜택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대 조치로 저렴한 중국 제품의 수입이 증가, 인도네시아의 무역적자가 오히려 확대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중앙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전체 무역 수지는 31억 9,690만 달러 적자였다. 수출액은 전년 대비 6.9% 감소한 1,675억 2,500만 달러, 수입액은 9.5% 감소한 1,707억 2,190만 달러였다. 이 가운데 중국의 비석유가스 수입액은 445억 달러에 달했다.





피트니스센터 기구 제대로 이용하기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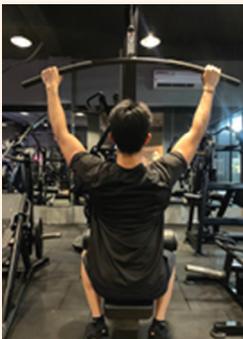
남자의 상징 '화난 등' 여자의 자존심 '명품 뒤탈'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해 본 고민 하나.

‘남들 눈에 보이는 나의 등 근육은 멋지게 화가 나 있을까?’, ‘우아하게 섹시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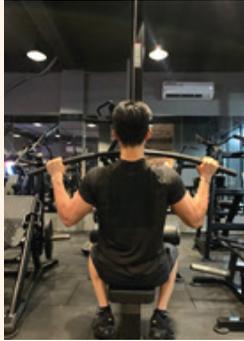
운동할 때 등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궁금증은 더욱 커진다.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면 할수록 팔만 커지는 느낌. 실제로 등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등 운동이 아닌 팔 운동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한다. 이번 편에서는 남성분들의 멋진 등 근육과 여성분의 잘록한 허리 선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 줄 등 근육 단련법을 낱알이 파헤쳐 보기로 하자. 본인이 원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운동법은 다음과 같다.

랫 풀 다운 (Lat Pull Down)



👉 랫 풀 다운 (Lat Pull Down): 턱걸이 운동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운동기구

1. 허벅지와 엉덩이가 고정될 수 있도록 의자를 조정해 앉는다.
2. 두 팔을 벌려 바를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잡는다.
3. 가슴을 약간 들어 양쪽 어깨의 높이를 맞춘다.
4. 숨을 들이마시고 복부에 힘을 주며 몸통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5. 견갑골(날개뼈)쪽에 무게감을 유지한 채 쇠골 방향으로 바를 당겨준다. 이때 호흡을 내뱉으며 견갑골을 움직여 준다는 느낌으로 당겨주는 것이 중요하다.
6. 등에 느낌을 유지한 채 천천히 처음 자세로 돌아간다.
7. 10~15회씩 할 수 있는 무게로 3~5세트 정도 반복한다.

Point

견갑골을 사용해서 끌어 당겨주는 것이 포인트!

약간 힘을 주며 팔을 바에 걸어 놓는다는 느낌으로 잡아주고 견갑골의 움직임에 집중해보자.

시트드 로우 (Seated Row), 플레이트 로드 머신



1. 의자 높이를 조정해 앉아준다. 손을 뺐었을 때 자신의 명치 쪽 높이가 되는 것이 좋다. 초보자 분들은 광배근*에 자극을 집중하기 위해 11자로 손잡이를 잡아주는 것을 권한다. (등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광배근은 ‘이소룡 옆구리 근육’을 상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2. 가슴을 살짝 들고 발판을 약간 밟아준다는 느낌으로 하체를 단단히 고정시킨다.

3. 숨을 들이마시고 코어근육에 힘을 준 상태로 등의 중·하부로 무게감을 받아준다.

4. 팔꿈치가 약간 벌어진 상태를 유지하며 끝까지 당기며 숨을 내쉴다. (과도하게 굽는 자세는 지양하며 마지막에는 견갑골이 자연스럽게 약간 모아지는 느낌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견갑골을 모은다는 느낌으로 하면 광배근이 확실히 쓰이지 않으므로 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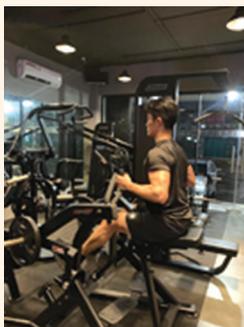
5. 다시 숨을 들이마시며 코어근육을 단단히 잡고 처음 자세로 저항감을 느끼며 천천히 원위치로 돌아간다

6. 10~15회씩 할 수 있는 무게로 3~5세트 정도 반복해준다.

Point

◆ 팔꿈치를 충분히 뒤로 넘기며 가슴을 약간 벌려주는 느낌을 유지하자.

◆ 상체를 과도하게 뒤로 젖히며 반동을 이용하여 당기지 말자. 반드시 ‘근육을 이용해 당겨야 한다!’



글: 김승욱 (HUMAN BALANCE, 플라빠가딩)



Lac Mei Che (Mangga Besar)

글: 주윤지 (한국컨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여러분~안녕하세요 😊 다들 건강하시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내는 요즘입니다. ‘지금 같은 이 시국에 중식당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 생각이 수없이 들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매년 비슷한 한식만 먹을 수 없을 순 없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다고 얼른 대답해 주세요~~ 요즘같이 비도 자주 오고 우울한 날씨에 입맛을 돋아 줄 음식으로 꺾바로우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지인에게 꺾바로우 맛집이 자카르타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 가보았습니다! 두둥둥 그 식당이름은 바로바로 Lac Mei Che입니다. 현지 화교들이 많이 거주하는 Mangga Besar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 식당의 가장 큰 장점은 맛있고 양이 많고 저렴하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가슴이 쿵쿵쿵쿵 설레지 않으시나요?@@ 이 식당의 메뉴판을 보게 되시면 정신을 못 차리게 되실 거예요. 다양한 메뉴에, 먹고 싶은 음식들이 너무 많아서요~그래서 많은 분들과 함께 가셔서 다채로운 요리를 주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자~많은 메뉴들 중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메뉴는 총 4가지입니다. 첫번째로는 중국식 돼지등갈비구이인 Presto Paikut Ubi Jagung (188,000루피아++)이예요. 우선, 메뉴판의 사진과 실제 음식의 양이 달라서 놀랍니다. 이렇게 양이 많은 줄 몰랐어요...커다란 접시

위에 돼지 등갈비 10여대가 구운 고구마와 구운 옥수수가 함께 나옵니다. ‘이렇게 팔아도 돈이 남나...’ 생각이 들 정도라니깐요^^;; 다른 어느 식당을 가도 이 가격에 절대 돼지 등갈비 구이를 먹을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혹시나 여기보다 저렴하고 양 많고 맛있는 돼지 등갈비구이 파는 곳을 아시는 분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 식당만의 특제소스를 등갈비에 발라 구운 이 음식은 무조건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어요. 식으면 고기가 살짝 뻑뻑해지더라고요. 그럴 땐 다시 데워달라고 요청하세요 꼭!

이 식당으로 저를 이끈 꺾바로우, Babi Crispy Asam Manis(88,000루피아++)는 기대감이 매우 컸던 맛이였을까요. 생각보다 바삭바삭하지 않고 식감이 살짝 딱딱하여 좀 실망했어요. 그렇다고 맛이 없는 건 아닙니다~ㅋㅋㅋ

그리고 중국음식을 먹는데 마파두부가 빠지면 섭섭하죠. 이 식당의 Mapo Doufu(68,000루피아++)는 살짝 매콤해요. 소스가 매콤하지만 생각보다 짜지는 않아서 흰밥 없이도 먹을 수 있더라고요. 두부가 정말 야들야들해요~ 이 음식도 양이 너무 많아서 놀랍니다. ‘이 가격에 이렇게 많이나...’ 결국엔 다 못 먹어서 포장 해왔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었던 요리는 가지요리인데요. Terong Yuxiang(78,000루피아++)은 Yuxiang 소스에 가지를 볶은 요리인데요. 분명 가지를 소스에 볶았는데도 가지가 탱글탱글한 게 식감이 살아있더라고요. 가지의 물컹물컹한 식감 때문에 가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음식은 거부감없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Yuxiang 소스는 이번에 처음 먹어봤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물론 이 음식도 양이 많아요@.@ 이 메뉴 강추입니다!

그리고 이 식당의 또 다른 매력은 세금 10%만 붙고 새벽 1시까지 운영된다는 점! 끌리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다음 호에서도 유익한 맛집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식당 정보 : Lac Mei Che>

음식 종류 : 중식
 가격대 : Rp 40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일 11:00~1:00
 전화번호 : 021-6399-560
 위치 : Jl.Mangga Besar I
 No.63K Mangga Besar
 Jakarta Barat

※ Zomato 참고



나는 바하사로 수다떠다

민선희

『유창한 회화를 위한 열공 인도네시아어 문법』 저자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어릴 때 자전거도 많이 타고, 동네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많이 치더라고요. 물론 배드민턴 강국이기도 하고요. 자카르타에서도 주말에 사이클링 동호회를 많이 볼 수 있지요.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테니스도 많이 배우고요. 참, 배드민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나라 방수현 선수의 숙적으로 유명한 ‘수시 수산티’ 인도네시아 선수의 이야기를 담아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Susi Susanti Love All> 를 한번 보세요. 강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또 어릴 때부터 물놀이를 ‘개헤엄’을 연마하다 보니 커서도 수영(?)을 위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 체스와 비슷한 짜뚜르(catur)를 두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족자카르타에 살 때는 마을 어귀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체스를 두는 사람들을 자주 봤어요. 생각해보니 새도 많이 키우네요. 음식이 너무나도 다양하니까 먹는걸 취미로 두는 것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즐거운 일이죠. 3월호에서는 ‘취미’와 관련된 단어와 표현들을 공부할 거예요. 바하사로 수다떠는 그날까지 열공~!

미리 보기

취미가 뭐예요? 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Hobimu apa? (너의 취미는 뭐야?) 또는 Hobinya apa? (취미가 뭐예요?) 라고 간단하게 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어요.

Kalau ada waktu senggang, biasanya ngapain? 시간 있으면(시간 있을 때) 보통 뭐해?

☞ waktu senggang, waktu luang 여유 있는 시간, 바쁘지 않은 시간

ng-apa-in = melakukan apa ‘무엇을 하다’

Kalau ada waktu senggang, Anda melakukan apa? 여유 시간이 있으면, 당신은 무엇을 하나요? -라고 실제 대화에서 쓴다면 너무 딱딱해요. 친구 사이에서는 Hobimu apa? Apa hobimu? Kalau ada waktu senggang, kamu ngapai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좀 더 예의를 갖춰야 하는 사람에게 묻는다면, Hobi Bapak apa? Apa hobi Bapak?라고 간단히 말할 수도 있고, Apa saja kegiatan Bapak untuk mengisi waktu? **여유시간이 있을 때 (시간 때우기 용으로) 하시는 활동에는 뭐가 있나요?(뭐뭐 있나?)**

Di luar kerja, kegiatan hobi Bapak apa saja? **일 안 하실 때 어떤 취미활동을 하시나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 제 취미는 요리하는 거예요.

Hobi saya memasak. =Saya hobi memasak.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더 자주 들어요.





◇ 제 취미는 한국 드라마 보는 거예요.

Hobi saya menonton drama Korea. “Saya hobi nonton drama Korea”

저는 한국 드라마 팬이에요. Saya **penggemar** drama Korea.

☞ 이 표현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써요.

penggemar는 ‘뭔가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 이라는 뜻이에요.
어근은 **gemar**, 동사는 **menggemari** = sangat menyukai / digemari

바하사로 수다떨기

Tips : 인니어 대화를 보기 전에 한국어를 보면서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① 안도 : 사니야, 너는 취미가 뭐야?

사니 : 특별한 거 없는데. 음...먹는 게 취미지 뭐. 하하하

안도 : 그건 뭐 나도 알고 있고 하하하

Ando : Hobimu apa, San?

Sani : Enggak ada yang spesial sih. Ya... hobi makanlah. Hahaha.

Ando : Kalau itu mah aku juga udah tahu hahaha

② 헬렌 : 사니야 우리 애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하는데 우리 애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사니 : 한국어 가르치는 거 되게 어려워. 한국인이라도 다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냐. 내 친구 중에 한국어 선생님이 있는데 소개시켜 줄까?

헬렌 : 나는 공부하는 거 취미 없는데 있지, 우리 애는 되게 좋아해. 요새 한국 좋아해가지고.

사니 : 니 애라도 좋아하니 다행이다야 ㅋㅋ 질문 있으면 나한테 물으라 그래. 질문 정도야 내가 대답할 수 있지.

Helen : San, anak gua mau belajar bahasa Korea. Lu bisa ngajarin anak gua enggak?

Sani : Ngajar bahasa Korea itu susah banget. Enggak semua orang Korea bisa ngajar lho. Gua punya teman guru bahasa Korea, mau gua kenalin?

Helen : Kalau gua sih enggak hobi belajar ya, tapi anak gua suka banget. Dia lagi **demen** Korea.

Sani : Syukurlah hahaha anak lu beda sama lu. Kalau ada pertanyaan, suruh tanya ke gua saja. Kalau cuma pertanyaan gua bisa jawab.

demen [드문] = senang, suka
“lagi demen drama Korea” 요새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좋아한다 즐긴다) 라는 의미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일상에서 아주 자주 쓰는 단어예요.
Aku enggak begitu demen sih, nonton bola tuh. 나는 축구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③ 뚜르 : 지난 주말에 뭐 했어? 심심하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같이 있어 줄게(accompany)
미나 : 와~~ 고마워~~ 나 주말에 집에서 바빴어. 브이로그 하는 거 좋아하거든. 이거 내 브이로그야 한번 봐봐.
뚜르 : 너 부지런하구나~~난 그런 거 귀찮아~

Tur : Kamu ngapain aja weekend kemarin? Kalau bosan hubungi aku, aku bisa nemanin kamu.

Mina : Wah~~ makasih ya~ kemarin aku sibuk di rumah.. soalnya aku suka ngevlog. Ini vlog aku, coba lihat deh.

Tur : Kamu rajin banget ya, kalau aku... yang kayak gitu-gitu malas~

④ 에도 : San, 요새 뭐하고 지내? (뭐 하느라 바빠?)

사니 : 요즘 인니 영화 많이 봐. 가장 마지막에 본 게 <수시 수산티>야. 유튜브에서 비디오도 찾아 봤다니까. 수시 수산티 나온 토크쇼 말이야.

에도 : 나한테 같이 가잔 말도 안 하고....

사니 : 하하 가끔 혼자 보는 거도 재미가 있잖아~ 알겠어, 언제 한번 같이 보러 가자~

Eddo : Kamu sibuk apa sekarang, San? (너 지금 뭐해? 뭐 하느라 한창 바빠? 요새 뭐하고 지내? “지금” 이 될 수도 있고 “요즘” 이 될 수도 있어요 맥락에 따라~)

Sani : Aku sering nonton film Indonesia. Terakhir... aku habis nonton film Susi Susanti. Aku sampai cari-cari video dia di Youtube. Nonton acara talk show yang dia masuk juga.

Eddo : Enggak ngajak aku....

Sani : Haha kadang nonton sendiri itu kan asyik juga. Ya, kapan-kapan kita nonton bareng, ya.

보통 일상회화에서 ‘영화 보자’, ‘그 영화 나 (저번에) 봤어’ 이런 표현을 할 때는 “Nonton yuk!”, “Aku sudah nonton” 이렇게 쓰는데요, menonton에서 me-만 빼고 말하는 거지요. 어근은 ton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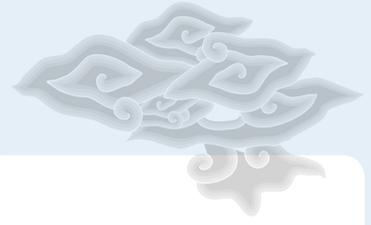
⑤ 사니 : Mbak Dora, 음악 듣는 거 좋아하죠?

도라 : 어, 어떻게 알았어?

사니 : 라디오를 맨날 틀어놓고 있으니까....

도라 : 옛날에는 라디오 듣는 거 엄청 좋아했는데, 야근 할 때 소음으로 틀어 놓는 거지 뭐 (너무 조용하지 않게) 요새는 BTS 뮤직비디오 보는 거 좋아해. 노래까지 외워.

사니 : 한국사람인 나도 못 외우는 걸.... 대단하시네요~



Sani : Mbak Dora suka dengar musik ya?

Dora : Iya, kok tahu Sani?

Sani : Mbak kan selalu putarin radio.

Dora : Iya dulu aku hobi banget dengar radio. Tapi kalau lembur sih biar enggak sepi saja. Aku sekarang suka nonton musik video BTS. Hahahaha Aku sampai hafal lagunya.

Sani : Aku sebagai orang Korea aja enggak hafal. Hebat, Mbak.

⑥ 마가렛 : 크리스틴이 고양이 기르는 게 취미인데, 차 한대 값이래... 세상에 마상에...

두딤 : 아 그래? 대체 어떤 고양이길래.... 고양이를 뭐 하러 사? 길에 널린 게 고양이인데?

마가렛 : 그...그렇긴 한데... 다르지 그래도... 나는 고양이 기르는 사람들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싶어.

Margaret : Si Kristin hobi memelihara kucing. Kucingnya seharga mobil katanya.

Buset... [부셋]

Dudit : O ya? kucing kayak gimana tuh? Ngapain beli kucing? Di jalan udah banyak kayak gitu?

Margaret : Iya sih.... tapi kan beda tuh..... Aku tertarik nih gabung komunitas pemelihara kucing.

내 취미는 어디 있을까~

- ◇ (ber)main bulu tangkis / golf / sepak bola 배드민턴을 치다/골프를 하다(main golf) /축구하다
- ◇ menyulam 자수(바느질)를 하다
- ◇ menyiram tanaman 식물에 물을 주다
- ◇ memelihara anjing / kucing 개(강아지)/고양이를 키우다
- ◇ (ber)lari 달리기
- ◇ bersepeda 자전거 타기 (=sepedaan [스빠다안])
- ◇ berjalan-jalan, bepergian, berwisata ke luar negeri, 돌아다니다(여행하다), 해외에 관광가다
- ◇ mengoleksi motor / mobil / Kris 오토바이/차/크리스(인도네시아 전통검)을 수집하다

☞ 인니어가 궁금하면? 여기로 nusantara817@daum.net

긍정적인 인생관

서미숙 / 수필가, 시인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장)

gaeunsuh@hanmail.net



인간 중심인 현대를 살면서 연구해야할 최대 과제는 ‘인간’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의 사고를 되짚어본다. 세계적인 교육자 페스탈로치는 “인간성의 발전은 머리와 심장, 손의 조화를 균형적으로 발달시키는 데 있다”고 하였다. 머리는 지식, 심장은 도덕, 손은 기술을 가리킨다. 인간의 머리는 실제로 우둔한 면도 있다. 한 코드 밖에 작동하지 않을 때는 ‘~이다’와 ‘~이 아니다’ 중 한가지만을 택하려 든다. 긍정이 들어오면 부정이나가고, 부정이 들어오면 긍정이 나간다. 자기 피에 속는 어리석음도 빛게 된다. 지식을 많이 저장하고 있으면서 올바르게 빛을 내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의 도덕성이 그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인격과 양심은 배운 지식을 양지로 인도하는데 도움을 준다. 책속에서 아는 것을 뜻있게 펼치라는 심장의 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소설가이면서 정치가이기도 한 ‘앙드레 말로’의 책 <인간조건>에 나오는 대사가 무척 인상적이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이라는 세월의 잉태 속에 인간으로 태어난다.

인간의 형체를 만드는 데는 10개월이 걸리지만 어머니의 희생과 의지로 키우고 영양을 주는 일부터 유년기와 청년기를 거쳐 성인으로 참 인간이 되기까지는 60년이 걸린다.”라고 했다.

어쩌면 앙드레 말로는 진정한 인생의 시기를 60년까지로 본 것 같다. 어떠한 고난의 세월도 삼키며 모든 것을 순리대로 따른다는 60년의 연륜, 태양이 2만 번을 넘게 뜨고 봄을 60번이나 맞으며 그려진 인생의 파노라마는 상승과 하강곡선을 파도 타듯 이어져 오는 것 같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순간도 내일이라는 호기심의 무대를 앞에 두고 오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긍정적인 인생관은 누구든 무엇이든 따라가고 싶게 만드는 힘이다.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자 맑은 공기며 시원한 바람이다. 풍요롭고 가치있는 삶은 나와 다른 남을 인정하고 닮으려 할 때 넉넉해진다. 올바른 신념과 의지로 자신있게 사는 사람 들의 삶을 멘토(Mentor)로 삼고 그 기운을 나눠 마시게 되면

더불어 성장하는 이치와 같다. 인간의 가치를 높여주고 삶의 희로애락에 순응하면서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문학’ 이야말로 우리 삶에 존재하는 가장 큰 보석이다. 문학에 대한 깊이를 알수록 세상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깊어진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학인들의 삶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다.

긍정적인 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독서와 글쓰기, 사람이 읽을 때에만 생명을 갖게 되는 문자와 활자의 위력은 빈약한 정신과 만날 때 빛으로 깨어난다. 말이나 영상보다 ‘사색의 여유’를 주며 마음 안에 오래 머물다가는 글의 가치를 우리는 이미 체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 지향적인 글을 읽으면 생활 속의 고통은 반감되면서 용기와 희망도 얻는다.

역경을 이겨낸 책 속의 주인공들의 집념을 되새기며 세상을 보게 된다. 사랑하는 이들의 상처를 다독이고 보살피는 인간애에서 감동을 받으며 자신을 투시해 보기도 한다. 우리주변을 돌아보면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자신’이라는 그릇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험담으로 만족을 느끼며 스스로를 합리화 시킨다. 그들은 입버릇처럼 ‘~때문에 죽겠어, ~때문에 미치겠어!’ 라는 말을 습관처럼 달고 산다. 그런 말들은 무의식속에서 가까운 사람들의 기(氣)를 빼앗는다.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자신의 이기와 욕심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다. 그런 사람은 육체적인 노화도 빨리 찾아온다. 긍정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의식도 바뀌게 되고 생활까지 밝아지는 진리를 너무 늦지 않게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란다.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이 점점 좁아들고 있다. 우리의 고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의 영향이 크다. 이런 시기는 잠

시 사회활동을 쉬면서 자신만의 세상에서 산책하며 휴식을 취하라는 신의 배려라고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해 보면 어떨까? 거실 문을 활짝 열고 창밖을 내다보는 여유도 가져보면서..... 책상에 미처 읽지 못하고 쌓여 있는 책들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책장을 옆으로 비스듬히 옮겼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책장으로 가려졌던 다른 풍경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진다. 다소 어두웠던 방이 시나브로 밝은 햇살이 큰 창으로 들어온다. 신문, 잡지, 오늘의 간행물들을 펼치는데 갑자기 잔글씨들이 흔들린다. 자료 수집을 위해 책꽂이에 있는 문고판 책을 넘기는데 활자가 움직이며 이번에는 웬 검은 벌레가 눈앞에 아른거린다. 무심결에 책을 뒤로 당겨보니, 아뿔싸! 글씨가 그제야 똑바로 보였다. 며칠 사이 눈이 침침하고 아프더니 급격한 속도로 노안(老眼)이 진행되고 있나보다. 돋보기의 시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돋보기가 없으면 아무 글자도 볼 수 없음에 우울하기도 하지만 밤하늘에 보름달이 두 개씩 떠 있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던 친구들의 말이 떠올라 웃음이 난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아쉽지만은 않다. 젊음의 미가 멀어져 가는 대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는 깊어져 내면에 든든한 독이 쌓이는 것 같다. 쉼 물살에도 이겨낼 만한 높이의 탄탄한 독이 형성 된다. 어떠한 편견에도 구멍나고 다치지 않게 마음의 독을 손질하며 살아가게 된다. 긍정적인 인생관으로 세월을 맞는 자세가 바뀌게 된 것이다. 이제는 ‘왜’가 아닌 ‘어떻게’를 앞세워 적극적인 사고로 나아간다. ‘왜’가 안개라면 어떻게는 ‘햇살’이다. 왜라는 움츠림보다 어떻게라는 햇살에 방향을 잡는다. 생각이 많아 잠들지 못할 때 나를 지켜주는 것은 책 속에서 얻게 되는 빛나는 진리들이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리라’는 진리처럼 서로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삶의 아름다움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어렵고 힘든 이시기에 꼭 필요한 긍정적인 인생관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춘설을 말한다

홍사 김우재 (한국문인협회원)

온누리에 쌓인 눈
위대한 하늘의 섭리로
온통 하얗다

어설피 새 한 마리
가지 끝에 까치 밥 하나
눈에 생기가 돈다

얼어 버린
감을 쫓아 본다
흔들리는 가지에
휘청거리려 눈치를 본다

북풍 설한에 신음하는
애달픈 신음소리
누가 들을까

혹한 춘설에 핀
홍매화 고운 꽃 잎 얼어
세상사 서럽구나

추위에 꿈꿨던 언
대지도
푸르른 봄은 오는데

우리네 인생사도
따스한 봄을 기다리건만
세상사 참 어렵구나

변화무쌍한 세상
사계절도
하늘의 섭리인 걸 어이하리.



336회 문화탐방

인도네시아 한인사 100년의 발자취를 더듬다 기획탐방 6 한인 역사 속의 종교공동체 탐방 ④ 가톨릭교회편

한인 디아스포라는 종교공동체 속에서 가르치고 증거하며 한인들의 마음의 창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인 가톨릭공동체는 1978년 첫모임을 가지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늘 준비하고 있으라”하신 말씀처럼 겸허한 기다림 끝에 오늘날 자카르타 성요셉 성당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 소망을 안고 낮은 곳에서 가까이 다가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여타 종교와 공존해 왔습니다. 이번 탐방을 통해 한인 가톨릭교의 뿌리와 그들의 열망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인 100년 사 편찬을 응원해 주세요.

일시: 2020년 3월 21일(토) 09:00~15:00

집결: 무궁화 2층(JL SENAYAN) (1980년 초기공동체 모임 및 성모유치원 발족)

탐방지: 1. 초기공동체가 미사드렸던 곳(1978년~1994년)

① 성 마리아 성당 Gereja Santa Perawan Maria Ratu (Jl. Suryo No.62 Blok Q): 주일학교

② 성 카니시우스 성당Gereja Santo Petrus Kanisius (Jl. Menteng Raya No.64)

: 매월 마지막 주 미사, 1991년 첫 주보 발간

③ 성 카롤로스 성당 Gereja Santo Carolus) (Jl. Salemba Raya No.3)

④ Gereja Katedral Santa Maria Jakarta : 성모의 밤 외

2. 성모유치원 개원(1991년 개원~ 2000년)

① Jl. Prapanca Raya 3 No.33 ② Jl. Gandaria ③수녀님 숙소: Jl. Barito

3. 본당설정 및 신부님 파견 이후(1995년 3월~2001년 1월)

①성 이냐시오 말랑 성당Gereja Santo Ignatius Loyola (Jl. Malang No.22 Menteng)

②찌쁘떼 사제관

4. 자카르타성요셉한인성당(2001년 2월 성전 축성식)

5. 성모동산 제막식 및 본당설립 10주년 (2005년 3월)

접수: 밴드댓글: <https://band.us/@ikcs>

SMS/KT: 081-111-7230, 0816-190-9976 Email: ikcskr@gmail.com

Good bye, 인도네시아

2001년 10월 4일. 태어난 지 여섯 달밖에 지나지 않은 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어 인도네시아 온 첫날이다.

나는 이곳에서 건기와 우기가 열아홉 번 바뀔 동안 살았다. 이곳에서 성장하며 나는 종종 시간 이정지하는 만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곳이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파악 막힌 도로, 언제나 같은 시간에 울려 퍼지는 이슬람 사원의 아잔 소리, 사람들의 느릿느릿한 발걸음, 똑같은 형태로 번지는 노을... 나는 이곳이 참 단조롭고 때로는 너무 무료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어느 공익



광고의 영상처럼 서울 사람들이 네 계절 아래 도심 을 마음껏 활보하는 '다이나믹 코리아'를 막연히 동 경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네 단어만 떠올려도 가슴이 부풀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뀔 시간인 19년의 세월 어느 날.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펴 보니 시간이 멈춘 것만 같 았던 이곳도 나름 열심히 변해 있었다. 일상에 익숙 해져 느끼지 못했던 변화가 갑자기 내게 낯설음으 로 다가왔다. 솟구치듯 우뚝 선 고층 건물들, 도심 주변 을 가득 채운 광고 간판들, 그물망처럼 펼쳐진 도로, 건지 않고 뛰는 사람들...

영화 인셉션의 한 장면처럼 꿈속으로 들어가니 세상이 바뀐 모습이었다.

오랫동안 벗어나고 싶었던 곳이지만, 막상 이제 대학 공부를 위해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모 든 것이 정겹고, 아쉽기만 하다. 스무 살 나를 키워준 이곳. 인 도네시아. "Selamat Pagi" 이 말 한 마디가 벌써 내 가슴 한 곳에 추억이라는 이름의 바늘로 자리잡았다.

내가 자카르타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며 경험한 것들 중, 이곳 한국인 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두 가지 있다. 첫째 는 고등학교 2, 3학년이 되기 전까지 학업에 대한 부담이 그리 크지 않으니 마음껏 경험하고 배우라는 것이다. 여행, 독서, 음 악, 운동 등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비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다. 나는 그 중 운동을 많이 하라고 조 언해 주고 싶다. 축구, 농구, 수영, 배드민턴, 골프, 스킨스쿠버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즐기며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잘 조 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생기자 JIS12 구상준



나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수영과 축구를 많이 했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배드민턴과 축구를 즐겨 했다. 학년이 올라가고 수험생이 되면 공부의 양이 많아지고, 잠을 잘 시간조차 부족하다. 이때가 되면 정말 체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아프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학생들처럼 바쁜 수험생 시간을 보냈지만, 쉽게 지치지 않았다. 오랫동안 운동을 하며, 키운 체

력이 내 건강의 버팀목이 되어준 까닭이다. 공부에 지쳤을 때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며 땀을 흘리면 내 안에 있던 모든 고민과 걱정이 날아가는 힐링을 경험할 수 있었다. 때로는 소소한 것이 대단한 것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 운동을 끝낸 후 땀 범벅이 되어 친구들과 나누었던 하이파이브.... 앞으로 나는 미래 사회에서 살아가며 수업이 많은 경쟁에 놓일 것이다. 그 경쟁이 끝난 뒤 나누게 될 하이파이브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고 있기에 사소한 기억들이 소중한하게 다가온다. 또 한 가지, 비록 해외에서 살지라도 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며 한국 문화를 많이 접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나는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내 삶의 대부분 시간을 보냈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 방문 때마다 어머니께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신 국어, 한국역사, 한국문학과 관련된 책들이 이제는 내 나이만큼 오래되어 낡았다. 하지만 그 속의 글자들은 오늘 내 안에 새겨져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늘 새롭게 꿈틀대고 있다. 한국대사관과 한인회 주관의 여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애국가를 부르고, 아리랑을 연주하고, 한복을 입었던 경험은 조국애와 동포애를 경험할 수 있었던 가슴 벅찬 시간이었다.

자카르타에서 고 3 생활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는 나는 잠이 늘 부족하고, 마음은 긴장의 연속이다.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곁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향해야 한다는 두려움도 떨쳐내기 힘든 미숙한 존재이다.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욱 아쉬운 것은 제2의 모국 인도네시아와 한동안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대학 4년과 군대 2년을 마치고, 또 공부를 하고 있을지,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몇 년... 사랑하는 이와 이별해야 하는 사람의 마음이 정든 고향을 떠나는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을까. '만남은 이별을 준비하고, 이별은 만남을 준비한다'는 불교의 윤회 사상처럼 나는 어느 시간의 지점에서 이곳에 다시 와 있는 상상을 해본다. 다만 그 모습이 하찮은 만남이 아닌 찬란한 만남이기를 소망하며.



여성연구자, 선을 넘다



“혼자 나와 있나요?”

책 <여성 연구자, 선을 넘다>의 공동 저자인 엄은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지 조사를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할 때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하며, “위험을 걱정해주는 목소리지만 위험으로 다가오는 목소리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엄 박사는 지난 22일 한인니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주최한 제68회 열린강좌에서 저자로 참여한 여성 현장연구 전문가들의 공저 <여성 연구자, 선을 넘다>를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책을 쓴 동기 ▲여성 해외지역 연구자의 경험은 어떻게 다른가. ▲ ‘아시아의 오늘을 연구한다’ 는 것의 의미 ▲여성들의 집단 글쓰기가 가진 힘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좌는 본 연구원 조연숙 특임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책 <여성 연구자, 선을 넘다>는 여성 연구자 12명이 온갖 사회적인 편견과 핸디캡, 그리고 “인생

의 허들”을 뛰어넘으며 홍콩, 이란, 베네수엘라, 이스라엘, 중국, 필리핀, 일본,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을 연구하는 “준비된” 지역연구 전문가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솔직하고 흥미진진하게 풀어 놓은 책이다.

7년 전부터 인도네시아를 꾸준히 방문해 연구하는 현장 연구자로서, 엄 박사는 “공부하는 여자들의 경험이 교민사회에서 오랜 기간 누군가의 ‘배우자’ 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동포 여성들의 경험과도 겹치는 영역이 있음을 대화 중에 저도 많이 느꼈다”라고 말했다.

아시아의 오늘을 연구한다는 의미의 한 예로 사회자 조연숙 연구원은 “고책 대표에서 현재는 교육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인도네시아 청년 나딤 마까림이 생각났습니다. 기존 방식 교육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는 전망에 따른 인사였습니다. 그들이 만들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예측하실 수 있나요” 라며 아시아의 오늘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여성의 집단적 글쓰기에 대해, 엄 박사는 12명이 서로 쓴 글을 읽으며 나만 겪은 게 아니고 모두 겪었음을 확인하며 공감과 위로를 느꼈고 개인의 경험이 보편성을 갖게 되었다고 답했다. 또 이 책이 해외로 나가서 일하고 싶거나 지역연구를 하고 싶은 20~30대들에게 ‘인생의 허들(결혼, 출산, 육아 등) 통과하는 법’ 이나 ‘연구 비법’ 으로 전수되어 그들에게 응원으로 다가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책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좋은 정보와 지식을 우리가 책, 뉴스, 논문 등으로 접하기까지, 연구자들이 어떻게 첫발을 내딛고,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어려움을 이겨냈고, 어떤 연구를 하며 어떤 지식과 문제점과 해법을 찾아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또 여성의 목소리로 남성 연구자들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보편적으로 여성들이 겪는 경험이어서, 연구자를 꿈꾸지 않아도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는 여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기도 하다.

엄 박사는 현재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및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연구원 객원연구원이기도하다.

엄 박사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필리핀의 광산개발과 그에 저항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지리/환경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엄 박사의 연구 주제는 동남아 환경문제, 도시화, 국제개발협력, 해외 한인기업과 한인사회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 “공정무역 생산자의 조직화와 국제적 관계망: 필리핀 마스코바도 생산자 조직을 사례로”, “메콩의 에너지 경관: 메콩 지역 수력경로의 형성과 변화”, “재외동포의 사회운동과 정치적 역동: 416자카르타 촛불행동의 활동을 중심으로” (공저) 등이 있고, 주요 저서 및 역서로는 『말레이 세계로 간 한국 기업들』 (공저), 『개발도상국과 국제개발』 (공역), 『흑설탕이 아니라 마스코바도』 등이 있다.



외국인직원 및 이사회원의 법적 지위(3)

(전호에서 계속)

3. 외국인 이사회원의 법적 신분

3.1. 이사회원은 국적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Pekerja)가 아니며 사업자(Pengusaha)이다. 근로기준법 제1조 3항은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3.1.1. 자신 소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연인, 민사연합체 혹은 법인,
- 3.1.2. 자신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사업을 영위해 주는 자연인, 민사연합체 혹은 법인,
- 3.1.3. 인도네시아 영토 밖에 소재한 상기 i)항 혹은 ii)항의 사업자를 대리하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소재한 자연인, 민사연합체 혹은 법인.

*이사회원은 상술한 3.1.2.에 해당되며 주식회사법 제94조 1항에도 “이사회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와 이사회원(대표이사.사장.부사장.이사) 간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사회원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당연히 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보상금이나 퇴직금이나 장기근속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4. 이사회원의 자격

4.1.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이사회원으로 피선될 자격이 있으나 법원의 판결문으로 파산선고를 당했거나, 파산이 선고된 회사의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으로써 파산에 책임이 있다고 선고된 자나,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쳤거나 금융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피선 자격이 없다.

4.2. 특정 분야 업종 주식회사의 이사회원의 피선 자격은 해당 업종을 관할 하는 법규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5. 이사회원의 선임 및 해임

5.1. 최초 이사회원의 선임은 회사 설립인이 한다.

5.2. 이사회원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한다. 주주총회는 임기가 남아있는 이사회원일 지라도 하시라도 해임할 수 있다.

5.3. 감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원을 임시로 해임할 수 있다. 감사회가 이사회원을 임시로 해임하는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면 해임이 확정되며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회원은 즉시 복권한다. 감사회의 이사회원 임시 해임 시효는 임시 해임일로부터 최장 30일이다

5.4. 주주총회는 이사회원을 임기를 정해 선임하며 계속 재 선임할 수 있다.

5.5. 주주총회는 이사회원의 선임 혹은 해임 발효 일자를 결정해야한다. 그러나 발효 일자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임 혹은 해임을 결의한 주주총회 폐회 순간부터 발효한다.

5.6.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원의 선임 혹은 해임을 결정하면 결정 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이사회원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지불 결정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원의 급여 및 수당의 액수에 대하여 결정하며, 주주총회는 이사회원의 보수에 대한 결정권을 감사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감사회 결의서로 이사회원에 대한 보수 및 수당을 결정한다.

7. 이사회원의 회사 경영책임

7.1. 이사회는 정관상의 회사 설립 목적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 하게 책임감을 갖고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 이사회원이 잘못 혹은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이사회원은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야 한다. 이사회원의 잘못 혹은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법원의 확정판결문이다. 법률 혹은 회사의 정관에 이사회원의 임무로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금하고 있는

사항을 범한 경우에, 발행주식의 최소 10%를 보유하고 있는 단독 혹은 복수 주주, 다른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은 회사의 명의로 해당 이사회원을 상대로 불법행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하면 해당 이사회원은 회사의 손해를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해당 이사회원이 회사의 주주인 경우에는 소송을 시작하면서 보유 주식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승소 시 매각하여 매각 대금으로 회사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

7.2. 이사(이사회)의 직무

7.2.1. 회사가 법인자격을 취득하도록 법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임무가 있다. 회사의 설립인들이 회사를 설립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형식요건을 갖춰 법무부장관에게 법인자격 취득 신청을 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형식요건을 갖췄다는 확인을 해주면 30일 이내에 실질요건인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관계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게 법인자격을 부여한다.

7.2.2. 회사의 장관 개정 사항 중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혹은 법무부장관에게 통보 확인을 요하는 사항을 일반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증서로 변경하고 공정증서로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거나 통보하여 승인서 혹은 통보 확인서를 득하여야 한다.

7.2.3. 매년 새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감사회 혹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

7.2.4. 매년 재무제표 등을 포함한 전년도 경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전년도 경영결과 보고서를 주주총회에서 받아드리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경영결과에 대하여 이사회 책임이 면제되며 그 책임이 회사로 옮겨지나 이사회에서 제출한 전년

도 경영결과 보고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이사회원이 연대로 경영결과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많은 진출 기업들이 연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전년도 경영결과 보고서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법리상으로는 대표이사 이하 전체 이사회원이 경영결과에 연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 동업 혹은 합작회사의 이사회는 매년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례 주주총회에 경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면하는 것이 중요하다.

7.2.5. 이사회는 주주명단, 주주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회계장부, 연간 경영결과 보고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 비치 및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주주의 서면 요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열람을 허용하고 주주총회 회의록과 연간 경영결과보고서의 사본을 주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2.6. 이사회원은 본인 혹은 이사회원의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 및 다른 회사의 주식을 회사에 보고해야 하고 이사회는 이를 회사의 특별장부에 기재해놔야 한다. 본인 혹은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 및 다른 회사의 주식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이사회원은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해당 이사회원이 회사의 손해를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7.2.7. 한 회계연도 기간 중 1회 혹은 수회에 걸쳐 회사의 재산의 50% 이상을 양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하려면 발행된 주식의 최소 3/4을 보유하고 있는 단수 혹은 복수 주주가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참석한 주주 최소 3/4 찬성으로 가결한 주주총회의 의결서가 있어야 한다.

7.2.8.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책임의 직무뿐만 아니라 제반 법규에 규정된 의무사항도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인도네시아 박물관 헤리티지

“10세기 배어난 황금 유물”

글 : 이수진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안섹션 박물관 해설사)

마카라 접시(Makara Plate)

10~11세기 발견 장소 미상 / 은 / 높이 4 직경 25 /

유물번호 1736/ A309

신비한 수중생물 마카라 조각을 가운데 담고 있는 은접시이다. 물고기 꼬리를 가진 두 개의 마카라가 서로의 꼬리를 물고 도는 모습이 양각되어 있다. 마카라 안쪽으로 중앙에 점 무늬와 꽃잎 문양이 있다. 마카라 바깥쪽 접시의 바닥에는 점 무늬 배경에 꽃과 나뭇잎 문양이 규칙적으로 있고, 두루미 두 마리와 사슴 한마리가 새겨져있다. 그릇의 가장자리에는 포도 넝쿨과 꽃잎 문양이 새겨있다. 바닥에 고대 자바어로 글씨가 쓰여져 있으나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었다. 밑에 둥근 검은 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굽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의식용 그릇은 왕족과 귀족들만이 사용했다.



나가 목걸이(용 목걸이 Naga Necklace)

18세기 동부 칼리만탄 쿠타이 / 금 보석 /

길이 37.5 너비 17.5 / 유물번호 E1267

금으로 만들어진 나가 목걸이이다. 서로 얽힌 네 마리의 나가(용 Naga)가 좌우대칭으로 조각되어 있다. 위의 두 마리 용은 바깥 쪽을 향하고 있고 아래 쪽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있다. 용의 몸체에 비늘을 표현하기 위해 가는 금사를 꼬아서 채웠다. 칼리만탄의 다약족은 나가 장식을 자주 사용했는데, 나가는 물과 관련된 지하세계를 의미한다.



입담배 도구 세트(Pekinangan)

18세기 술라웨시 / 금 은 / 지름 32.5 높이 2.5 / 유물번호 E547/ E434 a-e /22590a-e

아름다운 이 입담배 도구 세트는 술라웨시 왕족의 소유물이다. 새와 꽃 문양으로 장식된 큰 은쟁반과 다양한 크기의 은 용기로 구성되어 있고 뚜껑은 금으로 만들어졌다. 이 용기들은 빈랑나무 열매 (areca or betel nut), 석회 반죽 (limestone), 담배, 비틀 잎 등 입담배를 씹는데 필요한 재료를 담는 데 쓰였다. 비틀 잎을 씹는 것은 태국,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및 인도네시아에서 오래 전부터 내려온 풍습이다. 이것은 일반적 의식 (儀式)과 사회적 예식 때 모두 사용했는데, 단순한 환대의 표현을 넘어서 함께 참석한 사람들 서로가 일체감을 느끼도록 단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롬복 담배갑 (Wadah Tembakau)

18세기말 서부 누사틍가라 롬복 / 금 루비 보석 / 높이 4.5 너비 7 길이 11.4 / 유물번호 E 1068/7964

금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진 담배갑으로 입담배 도구 세트 중의 하나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중요시하는 입담배 씹기를 할 때,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특권 계층만이 금으로 된 용기를 사용한다. 용기의 바탕에 점 무늬를 넣고 꽃 봉오리, 줄기, 나뭇잎 장식을 양각으로 넣어 무척 아름답다.



사진 국립 제주 박물관 제공

자카르타 윈드오케스트라와 발리지역주민이 함께한 희망나눔 음악회

음악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한인오케스트라 최초로 발리에서 콘서트 가져

자카르타 윈드 오케스트라(지휘자 전훈)는 오는 2020년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4박 5일간 인도네시아 발리 여러 곳곳에서 5회에 걸쳐 ‘발리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희망 나눔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자카르타 윈드 오케스트라는 문화예술이 낙후된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음악의 지평을 열고자 전훈 지휘자를 필두로 지난해 3월 29일에 창단된 30여명의 청소년 윈드 오케스트라와 같은 해 10월 25일 창단한 성인 윈드 오케스트라 20명으로 구성된 50인조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이다.

이번 희망나눔음악회는 다양한 공연문화를 접하기 힘든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는 한인들과 발리지역 14곳의 고아원 아이들을 비롯한 현지 음악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 발리세움교회(담임목사 정문교)가 주최하고 자카르타 윈드 오케스트라가 주관하여 지난 해 10월부터 기획해 준비하였다. 지난 달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음악회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소년 단원 자모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인 단원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모두가 합심하고 단결해서 추진한 결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었다.

악보를 전혀 보지 못하던 학생부터 악기를 처음 배워보는 성인에 이르기까지 음악에 문외한이던

이들을 음악회를 개최할 정도로 단시간 내에 키워낸 전훈 지휘자는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유명한 편곡자이자 지휘자로 30년에 걸쳐 다양한 브라스밴드와 오케스트라를 키워낸 경험이 풍부한 지도자이다. 11세 어린 소녀부터 7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카르타 윈드 오케스트라 단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음악을 통해 하나 되며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관악기를 불며 호흡을 통해 바람에 실어 발리 지역 곳곳을 울렸다. 이들의 음악활동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음악에 새 지평을 열고 변화와 발전이 일어나는 가능성을 이번 발리희망나눔음악회를 통해 세상에 첫 선을 보였다.

단원들과 함께 연주활동을 하면서 단체를 이끌어가는 백형균 단장은 “관객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우리의 연주를 보고 꿈을 꿀 수 있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멋진 공연을 선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사랑 받지 못하고 버려진 고아들이나 평생을 가도 금관악기 한번 접해 보기 힘든 소외계층에게 한번의 공연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라며 이와 같은 공연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만남과 나눔으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윈드오케스트라 제공



교육 및 후원 문의 : 단장 백형균 0877 8166 3965

← A STAR IS BORN



구정희 (호텔 웨라톤 간다리아)

“목표: 존재의 가벼움”

#작심3일의체험장#한쌍의고문스쿼트와크랭크
#부끄럽지않은오빠가될게#웃음을주려던건아니아



❤️ 💬 📌 좋아요 1498



공 고

인도네시아 한인동포가 쓰는 ‘한인100년사’의 제목과 표지디자인을 공모합니다.

인도네시아한인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에게는 선물을 드립니다.

haninnewsinni@gmail.com



Wikipedia

‘자카르타 역사 연구팀’ 출범에 부쳐

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장)

한 역사가는 말했습니다. “과거를 알려고 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을 알 자격도 없다.” 자카르타에 발 딛고 사는 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자카르타를 얼마나 알고 있는냐고. 자카르타의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와 감상은 이 도시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역사가 없는 도시는 뿌리가 없다

자카르타(옛, 바타비아)는 17세기부터 18세기 중반까지 ‘동양의 진주’ 라 불릴 만큼 도시 계획이 잘되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자바해는 물론 인도양의 무역항 역할을 하던 자카르타는 세계적인 항구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왔습니다.

이곳에서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배경이 다른 이들이 수 세기에 걸쳐 수많은 교류와 왕래를 해왔습니다. 현재 자카르타 거주민들 중 대다수는 자카르타 원주민인 브따위 족이 아닌 인도네시아 다른 섬이나 다양한 국가로부터 온 이민자들입니다. 그들은 피부색과 언어가 서로 달라도 친근하게 어

울러왔으며 이 도시 위에서 다양한 국적의 2세대가 태어나고 성장해 왔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줄곧 옛 도시 ‘꼬따 뚜아(Kota Tua)’ 에 대한 연구는 저에게는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자카르타에 사는 우리가 언젠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수 백 년의 역사를 안은 채 허물어지고 버려진 자카르타의 옛 건물들의 자취를 따라가고, 그곳에 새겨진 흐느끼는 이야기를 꺼내어 들려주는 일은 가슴 뛰는 일이었습니다. 역사적, 건축학적 가치를 지닌 오래되고 아름다운 유적지는 그 어떤 석학들의 논문이나 학자들의 분석보다 더 친근하고 구체적이며, 자카르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저는 1997년부터 14년간 자카르타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한국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고민했습니다. 한국 역사는 당연히 알아야 하겠지만, 너희들이 몸담고 있는 이 땅의 역사와 문화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존재한다’ 라는 뜻의 영어 ‘exist’ 는 ‘밖에 서 있다’ 라는 뜻입니다. 새롭고 낯선 곳에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존재감을 느끼고 되고, 그것으로 우리는 정체성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누군가 사랑하고 싶을 때 꼬따 뚜아에 갔다

30여 년 전에 우리 교민들은 바틱과 한약을 사기 위해서 글로독에 다녔습니다. 뭐가 그리 무서웠을까. 꼭 몇 명이 같이 다녔습니다. 복잡한 글로독에서 일을 보고 돌아갈 때, 눈앞에 ‘카페 바타비아’ 라고 적힌 녹색 차양이 보이고, 양쪽에 외양 박물관과 역사박물관이 보이는 차도를 지나야 했습니다. 2005년 파타힐라 광장을 확장하면서 외

양박물관과 역사박물관 사이의 차도와 카페 바타비아 앞의 좁은 도로는 없어졌습니다. 당시는 번잡하고 구질구질한 거리였습니다.

순다 끝라빠 지역도 같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항구 쪽 뱃사람들은 사납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카르타의 출발지가 순다 끝라빠라는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내려 보자고 해도 모두들 여기는 위험한 곳이니 빨리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주차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몇 년 뒤, 옛 도시에 갔습니다. 웅장하고 튼튼해 보이는 역사박물관은 다른 세상 같았고,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듬은 카페 바타비아에는 1800년대의 낭만이 숨 쉬고 있었습니다. 순다 끝라빠 항에는 몇 세기 동안 사용했던 범선 뺨니시가 그림처럼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날을 나는 잊지 못합니다. 빼걱거리는 나무다리 위를 달려서 나에게 안기던 수상가옥의 아이들. 물속에 그림자를 빠뜨리고 있는 집들. 집 그림자 속으로 스티로폼으로 만든 배를 타고 잠겨드는 아이들, 저 멀리 바다에 묶여 있던 배들, 한 겹 망사로 짜여진 영혼의 빨래가 펄럭이던 그곳을. (지금은 루아르 바땅 수상가옥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술한 어려움 속에서도 335회의 문화탐방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문화탐방의 첫 번째 장소가 꼬따 뿌아였습니다. 1999년 4월 16일이었습니다. 꼬따 뿌아, 100번은 더 가지 않았을까. 가끔 제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죽으면 꼬따 뿌아에 물어달라고. 마음이 무너질 때 언제나 그곳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으니까, 영혼의 젓줄이 흐르고 있었으니까.

누군가 사랑하고 싶을 때 꼬따 뿌아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민중들의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을 이겨낸 역사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대의 향기와 민족의 식의 색깔이 있었습니다. 삶의 물결과 영롱한 과거의 신비들이 나를 따사롭게 감싸주던 옛 도시. 마음이 무너질 때 저는 그곳에 갔습니다. 몇 세기의 소멸의 시간이 문화의 아름다운 나신을 보여주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도 옛 건물들이 늘어선 파타힐라 광장에서 이곳을 흘러간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꼬따

뿌아의 한 모퉁이에서 외국인들에게 마냥 친절하기 만한 이 순박한 인도네시아인들의 천성을 새삼 들여다봅니다. 빼앗기는 줄 모르고 함께 살아보려 했던 착한 민족은 수 백 년을 잔인하게 착취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이 땅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는 이 도시에 미안하고, 스콜처럼 부서지는 아픔을 견디어 낸 인도네시아인들의 역사가 담겨있어서 자카르타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아픔은 겪은 그들이 측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긴 역사를 지닌 자카르타는 각자의 마음속에서 스토리를 덧칠하면 더욱 의미 있는 도시로 만들어집니다.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 한인니문화역구원의 '자카르타 역사 연구팀'은 자카르타의 출발점인 순다 끝라빠 항구(Pelabuhan Sunda Kelapa), 전망대(Menara Syahbandar), 동인도 회사의 창고였던 해양박물관(Museum Bahari), 루아르 바땅 마을(Kampung Luar Batang), 동

인도 회사의 조선소(VOC Shipyard), 올라가지 않는 도개교(Jembatan Pasar Ayam), 잘란 깔리 브사르(Jalan Kali Besar)에 있는 오래된 집들, 빨간 상점(Toko Merah), 지금은 없어진 어시장(Pasar Ikan) 터, 그리고 옛 도시인 파타힐라(Fatahilah) 광장, 역사박물관, 미술 및 도자기박물관, 와양박물관, 꼬따역(Stasiun Kota), 시온 교회(Gereja Sion) 등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연구팀은 너무나 오랜 시간 것뻘히며 고단하게 달려온 자카르타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숨겨진 보물과 같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동안 자카르타를 연구한 사람들은 주로 유럽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복하고 그들이 착취한 땅이었지만,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이 땅의 모습을 글

로 그림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어느 독일인 역사가는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 평생을 자카르타의 역사 연구에 바치고 최근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도 자카르타의 역사 연구에 미약하나마 동참하려고 합니다.

영어, 인니어로 적혀진 사료들과 국내외 발표된 논문 및 저서들을 분석하고, 현장을 발로 뛰어 탐방하며 현지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진에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칼럼으로 그 결과물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연락주십시오.(SMS, KT)사공경 08161909976 / 최수진 0811904155

한인문화연구원 '자카르타 역사 연구팀'

한인문화연구원은 '자카르타 역사 연구팀'을 새로 결성했습니다. 오늘날 볼 수 있는 자카르타의 옛 건물들과 유적지와 연관된 역사적 사건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동상, 비석, 폐허가 된 유적지, 유물들을 통해 역사적 현장을 생생하게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중요한 민중들의 아픈 역사도 충실히 담으려고 합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약 2년 동안 10명의 팀원들이 연구하면서 칼럼도 연재하고 자카르타의 옛 도시인 순다 끝라빠 지역, 꼬따 뚜아를 중심으로 문화탐방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두 지역의 연구 성과를 나누면서 그 외의 지역으로도 연구를 확장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문화유산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고대문화와 역사의 신비를 감추고 있는 자카르타에 더욱 애정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자카르타가 여러분들의 단순한 생업의 장소가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문헌: 『Historical Sites of Jakarta』 by Adolf Heuken SJ

2020년 제4회 적도문학상 공모

1. 공모 부문 : 시, 수필, 단편소설, 동화
2. 주 제 : 해외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야기
외국인=한국이야기
3. 응모 대상 : 성인 및 만 15세 이상 학생 및 청소년
4. 응모 방법 : 자유시 2편 이상 / 수필 2편
(수필 1편 분량 A4 11포인트 2쪽 내외)
단편소설 및 동화 : 1편 이상
(1편 분량: A4 11포인트 5쪽 내외)
5. 접수 기간 : **2020년 1월 28일 - 3월 20일(금)**
발표: 4월 10일 ★ 시상식은 4월 25일(토)예정
6. 제 출 처 :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사무국
이메일 : spring609@naver.com
7. 문 의 : +62-811-805-017 / +62-811-969-1190
+62-812-234-7011



| 시상 내역 / 성인 부문 | |
|---------------|--|
| 대 상 (1명) |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상 - 상장 및 상금 US1,000 |
| 최우수상(2명) | 주인니한국대사상 / 재인니한인회장상 - 상장 및 부상 |
| 우수상 (4명) | 재인니 한인상공회의소회장상 / 한국문협인니지부장상 동남아신문 한나프레스상 / 글로벌기업문학상-상장 및 부상 |
| 특별상 (1명) |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장상 - 상장 및 부상 |
| 장려상 (3명) |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상 - 상장 및 부상 |

| 시상 내역 / 학생 및 청소년 부문 | |
|---------------------|--|
| 최우수상(1명) | 주아세안 대사상(외국인) - 상장 및 부상 |
| 우수상 (4명) | 한인포스트상 / 재인니한인문예총회장상 글로벌 기업문학상 / 꿈나무학교 이사장상-상장 및 부상 |
| 특별상 (1명) |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장상 - 상장 및 부상 |
| 장려상 (3명) |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상 - 상장 및 부상 |

- * 대상 (적도문학상) 당선자는 작가등단이 인정되며 최우수상 성인 당선자도 한국문단 등단기회 부여
- * 당선작은 <인도네시아문학>에 게재되며 수상자는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원으로 가입됨
- * 적도문학상 학생 수상자는 한국문인협회에서 발행되는 적도문학상 수상 증명서 교부

- 주 의 사 항
1. 응모작은 지면이나 사이버 공간에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창작물 이어야 함
 2. 표절 및 저작권 문제가 발생될 경우 당선이 취소됨
 3. 응모작의 앞부분에 이름, 거주지,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4. 응모작은 마감기일을 엄수하며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관 :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후원 :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 재인니 한인회 /  HanInPost
한인포스트

HANNAH PRESS /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 / PT. CIPTA ORION METAL

INTERVIEW
DI JALAN

Tukang Burung (새장사) Bpk Tri (38세)

고향 솔로에서 98년에 자카르타로 이사와서 출판사 인쇄 일을 했는데 정말 지루해서 5년 전 친구와 함께 여기서 새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정말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찾는 새는 Suren, Kacer, Muraī, Lovebird, Kenari 인데, 이중 가장 비싼 새는 Muraī (칠허리샤마까치울새)로 한마리에 2백만루피아 이상입니다. 잘 키우면 10여년 삽니다.

월 매출 약 3천만 루피아 (새, 사료, 약세사리) 정도인데 얼마 남는지는 비밀입니다. 아침 7시부터 5시까지 휴일 없이 부지런히 일해서 여기저기 지점도 내고 직원도 더 많이 고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를 왜 키우냐구요?

개인 취미, 힐링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겠지요. 그런데 새 키우는게 절대 간단하지 않아서 새 키우다 도리어 스트레스를 더 받는 사람도 제법 많다네요 ㅎㅎ

한인
뉴스

2020 임원산조금 납부명단

기준 : 2020.1.1.~ 2.27

| 번호 | 성명 및 직책 | 회사명 | 금액 | | 비고 |
|----|-----------|-----------------------------------|------------|--------|-------------|
| | | | 루피아 | 달러 | |
| 1 | 채만용 자문위원 | PT. CITRA BINA MAJU JAYA | | 1,000 | |
| 2 | 김동석 이사 | PT. DUNIA TRANSPORTASI LOGISTIK | 14,000,000 | | |
| 3 | 구종을 자문위원장 | PT. JASINDO DUTA SEGARA | 28,000,000 | | |
| 4 | 김종희 이사 | PT. YOUNG JIN INDONESIA | 14,000,000 | | 2019 |
| 5 | 강호성 부회장 | PT. ANUGRAH CIPTA MOULD INDONESIA | 70,500,000 | | 2019 |
| 6 | 김소웅 자문위원 | PT. SCI | 14,000,000 | | |
| 7 | 김종화 이사 | PT. ART MOLD INDONESIA | 14,000,000 | | |
| 8 | 이해왕 이사 | LEE & OH CONSULTING INDONESIA | 14,000,000 | | |
| 9 | 김재정 이사 | PT. ZEUS COMPONENT INDONESIA | 14,000,000 | | |
| 10 | 강선학 부회장 | PT. ALPHA TOY INDONESIA | 70,500,000 | | |
| 11 | 김우진 고문 | PT. SAMINDO ELECTRONICS | | 5,000 | |
| 12 | 박재한 회장 | PT. BUSANA PRIMA GLOBAL | | 20,000 | |
| 13 | 조호신 이사 | PT. NEMO INDONESIA | 28,000,000 | | 2019 ~ 2020 |
| 14 | 장영관 이사 | PT. SURYA MOLD TECH | 14,000,000 | | |
| 15 | 정창섭 이사 | PT. DAEWOO LOGISTICS ASIA | | 1,000 | |
| 16 | 손광주 이사 | PT. POSCO INTERNATIONAL INDONESIA | 14,000,000 | | |
| 17 | 유용선 이사 | PT. DAE HWA INDONESIA | 14,000,000 | | |
| 18 | 양시완 이사 | PT. KISWIRE INDONESIA | 28,000,000 | | 2019 ~ 2020 |
| 19 | 김영만 자문위원 | PT. BATAVIA CHEMTEK | 13,700,000 | | |
| 20 | 길병완 이사 | PT. DAEOYOUNG DUNIA SUBUR | 13,700,000 | | |
| 21 | 김경곤 이사 | PT. SUKWANG INDONESIA | 13,700,000 | | |
| 22 | 김인기 이사 | PT. INDOCORE PERKASA | 13,700,000 | | |
| 23 | 김호권 이사 | PT. SUNSHINE TECHNICA INDONESIA | 13,700,000 | | |
| 24 | 노태진 이사 | PT. SILLA ENGINEERING INDONESIA | 13,700,000 | | |
| 25 | 서영률 이사 | PT. PRATAMA ABADI INDUSTRI | 13,700,000 | | |
| 26 | 이정호 이사 | PT. HEONZ ROYAL JAYA | 13,700,000 | | |
| 27 | 정용완 부회장 | PT. HUNG A INDONESIA | 70,000,000 | | |
| 28 | 조규철 자문위원 | PT. DONG JUNG INDONESIA | | 1,000 | |
| 29 | 승범수 부회장 | PT. KORIND GROUP | | 5,000 | |
| 30 | 김희중 이사 | PT. JKI CONSULTING | 13,700,000 | | |
| 31 | 이완주 이사 | PT. PERTIWI INDO MAS | 13,700,000 | | |
| 32 | 엄정호 자문위원 | PT. ING INTERNATIONAL | 13,700,000 | | |
| 33 | 오세명 자문위원 | PT. SUNGLIM CHEMICAL | 13,700,000 | | |
| 34 | 김일태 이사 | PT. OROM | 14,000,000 | | |
| 35 | 양태화 이사 | PT. BOSUNG INDONESIA | 13,700,000 | | |
| 36 | 유진상 이사 | PT. DAE BAEK | 13,700,000 | | |
| 37 | 김영욱 자문위원 | PT. GAYA INDAH KHARISMA | 13,700,000 | | |
| 38 | 강형구 이사 | PT. MERITZ KORINDO INSURANCE | 13,700,000 | | |
| 39 | 김형근 이사 | PT. GAYA INDAH KHARISMA | 13,700,000 | | |
| 40 | 최정남 자문위원 | PT. GLOBAL FIBERINDO | 14,000,000 | | |
| 41 | 이명균 이사 | PT. HIJAU ELEKTRONIKA INDONESIA | 13,700,000 | | |
| 42 | 이상일 이사 | PT. UNGRAN INDAH BUSANA | 13,700,000 | | |
| 43 | 이정휴 부회장 | PT. GEE SAN INDONESIA | 69,750,000 | | |

2020 개인희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 기준 : 납입일순

| 번호 | 성명 | 금액(IDR) | 납입연도 | 번호 | 성명 | 금액(IDR) | 납입연도 |
|----|-----|-----------|-------------|----|-----|---------|-------------|
| 1 | 채만용 | 300,000 | | 32 | 손광조 | 300,000 | |
| 2 | 최석일 | 300,000 | | 33 | 김민영 | 300,000 | |
| 3 | 김주형 | 1,000,000 | | 34 | 유용선 | 300,000 | |
| 4 | 김동석 | 300,000 | | 35 | 김윤경 | 300,000 | |
| 5 | 최선명 | 300,000 | | 36 | 양시완 | 600,000 | 2019 ~ 2020 |
| 6 | 민정환 | 300,000 | | 37 | 노태진 | 300,000 | |
| 7 | 김종희 | 300,000 | 2019 | 38 | 김영만 | 300,000 | |
| 8 | 강호성 | 300,000 | 2019 | 39 | 김인기 | 300,000 | |
| 9 | 이국청 | 600,000 | 2020-2021 | 40 | 길병완 | 300,000 | |
| 10 | 김소웅 | 300,000 | | 41 | 정용완 | 300,000 | |
| 11 | 박화선 | 300,000 | | 42 | 조규철 | 300,000 | |
| 12 | 이원만 | 600,000 | 2020-2021 | 43 | 김경곤 | 300,000 | |
| 13 | 정민수 | 300,000 | | 44 | 김호권 | 300,000 | |
| 14 | 전정우 | 300,000 | | 45 | 이정호 | 300,000 | |
| 15 | 김종화 | 300,000 | | 46 | 서영률 | 300,000 | |
| 16 | 이해왕 | 300,000 | | 47 | 김희중 | 300,000 | |
| 17 | 김영실 | 300,000 | | 48 | 이완주 | 300,000 | |
| 18 | 김영울 | 300,000 | | 49 | 승범수 | 300,000 | |
| 19 | 조용재 | 300,000 | | 50 | 김재정 | 600,000 | 2020 ~ 2021 |
| 20 | 김창근 | 300,000 | | 51 | 유진상 | 300,000 | |
| 21 | 김대근 | 300,000 | | 52 | 김일태 | 300,000 | |
| 22 | 최성현 | 300,000 | | 53 | 양태화 | 300,000 | |
| 23 | 현병순 | 300,000 | | 54 | 오세명 | 300,000 | |
| 24 | 김희진 | 300,000 | | 55 | 엄정호 | 300,000 | |
| 25 | 강선학 | 300,000 | | 56 | 강형구 | 300,000 | |
| 26 | 김우진 | 300,000 | | 57 | 김영욱 | 300,000 | |
| 27 | 조호신 | 600,000 | 2019 ~ 2020 | 58 | 김형근 | 300,000 | |
| 28 | 장영관 | 300,000 | | 59 | 이상일 | 300,000 | |
| 29 | 박재한 | 300,000 | | 60 | 최정남 | 300,000 | |
| 30 | 안창섭 | 300,000 | | 61 | 이명균 | 300,000 | |
| 31 | 정창섭 | 300,000 | | 62 | 이정휴 | 300,000 | |



인도네시아투자자문센터 YSM & PARTNERS 법률사무소

투자자문. 소송. 기업법무. M&A. 인허가. 부동산. 자원. 귀화. 지식재산권

대표변호사 이승민(YI SENG MIN, SH., MH.)
MP 0816-1911-245. yisngmin@gmail.com

무료 법률 및 투자 상담. Free Legal & Investment Consulting
-화요일 오후 2시-4시 Jakarta KOTRA(Tel. 021-5790-5230)
GKBI 8th Floor, Jalan Sudirman No. 28, Jakarta Pusat
-주일 오전 10시 15분-11시 45분 한인연합교회
Jalan Wijaya I No. 41,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Korea Center Building Suite 202-203
Jalan Gatot Subroto No. 58,
Jakarta Selatan
Tel. 021-525-5959, 527-2422.
www.indonesialawyers.id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In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 **주요기관**

| | | |
|--------------|----------------------|-------|
| 한국대사관 | 2967 | 2555 |
| 영사과 | 2967 | 2580 |
|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 2967 | 2570 |
|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 574 | 1522 |
| 한국국제협력단 | 29921900, 29922100-1 | |
| 코리아센터빌딩 | 525 | 6525 |
| 한국산업인력공단 | 527 | 2612 |
| 자카르타한국문화원 | 2903 | 5650 |
|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 5785-3030 | |
| 중소기업진흥공단 | 5292 | 1302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2954 | 03357 |

● **한인단체**

| | | |
|--------------------|------|----------|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521 | 2515 |
|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 0812 | 1960 308 |
| 한국국제부인회 | 0817 | 110 234 |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 0815 | 11708882 |
| 한인니문화연구원 | 0816 | 1909 976 |

● **한인잡지**

| | | |
|------|------|------|
| 한인뉴스 | 521 | 2515 |
| 교민세계 | 739 | 9025 |
| 여명 | 9955 | 5859 |

● **교육기관**

| | | |
|-----------------|------|---------|
| 한국국제학교 (JKS) | 844 | 4958-61 |
| 간디국제학교 | 690 | 9902 |
|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 7884 | 1226 |
| 싱가폴국제학교 (SIS) | 7591 | 4414 |
| (골라빠가딩) | 460 | 8888 |
| 영국국제학교 (BIS) | 745 | 1670 |
|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 750 | 3640 |
| 북국제학교 (NJIS) | 453 | 1001 |
| 호주국제학교 (AIS) | 782 | 1141 |
| 일본학교 (JJS) | 745 | 4130 |
| 네덜란드국제학교(NIS) | 782 | 3929 |

| | | |
|-----------------------------|------|-----------|
| 독일국제학교(DIS) | 537 | 8080 |
| TAIPEI 국제학교(JITS) | 452 | 3273 |
| SPH (땅그랑) | 546 | 0234 |
| (찌까랑) | 897 | 2786 |
| RICS | 7590 | 3342 |
|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 0812 | 971 2306 |
| LYCEE Int. FRANCAIS | 750 | 3062 |
| JIPS | 3004 | 2885 |
| JIMS | 744 | 4860 |
| PAKISTAN EMBASSY SCHOOL | 390 | 4137 |
| ACG 국제학교 | 780 | 5636 |
| ICSCSE | 780 | 7313 |
|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 7590 | 8820/50 |
| Sinarmas World Academy(SWA) | | |
| 시나르마스 BSD | 0812 | 8689 2897 |
| 시나르마스 Thamrin | 2993 | 7234 |

● **유치원**

| | | |
|------------------|-------------------|------|
| Hansol Kids | 765 | 6588 |
| Brain School | 7179 | 4787 |
| Bambino (Cipete) | 227664497/7203356 | |
| (Patra Kuningan) | 8378 | 3783 |
| 사랑 | 835 | 1540 |
| 성모 | 7884 | 2467 |
| 하나 | 844 | 5283 |
| 리틀램스쿨(자카르타) | 750 | 0739 |
| (골라빠가딩) | 471 | 8047 |
| (땅그랑) | 558 | 7227 |

● **골프장**

| | | |
|-------------------|------|----------|
| BOGOR RAYA | 0251 | 827 1888 |
| CENKARENG | 5591 | 1111 |
| CILANGKAP | 8459 | 5687 |
| CIKAMPEK | 0264 | 317 007 |
| DAMAI INDAH [BSD] | 537 | 0290 |
| EMERALDA | 875 | 9019 |
| GADING RAYA | 546 | 7668 |



세무상담은 텍스트로

세무사/AFPK자격인증자 **이희영**

대한민국세무관련조력/비거주자,
거주자판단자문 등
대한민국세무상담 환영

• 주요업무 •

세무조사전문
조세불복전문
기장신고대리
양도상속증여
세무컨설팅

• 주요경력 (국세청 17년 근무)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근무
강서세무서, 영등포세무서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
조사과, 법인세과, 재산세과 등 근무

(07807)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68 마곡747타워 602호(마곡역
6번 출구)
T +82-2-2662-7476
F +82-2-2664-7473
M +82-10-6599-7476
E taxlow7476@naver.com



가나의 Special MENU



가나의
북
전문



가나의
도시락
전문



가나의
케터링
전문

Landmark Bld. Ground Floor. Jl. Jend.
Sudirman Kav.1 Jakarta
Phone 2520077, 5710909
(KIM MI YOUNG 0811 918 132)

| | |
|-----------------|---------------|
| GUNUNG GEULIS | 0251)825 7500 |
| HALIM 1 | 800 5762 |
| HALIM 2 | 809 0729 |
| IMPERIAL | 546 0120 |
| JABABEKA | 893 6148 |
| JAGORAWI | 875 3810 |
| KAPUK | 588 2388 |
| KARAWANG | 0267)405 888 |
| KEDATON | 5930 0000 |
| KEMAYORAN | 654 1156 |
| KRAKATAU | 0254)372 030 |
| LIDO | 0251)822 1008 |
| MATOA | 787 0864 |
| MODERN | 552 9228 |
| PALM HILL | 8795 4307 |
| PANGKALAN JATI | 751 3326 |
| PERMATA SENTUL | 8795 1787 |
| PONDOK CABE | 740 5385 |
| PONDOK INDAH | 769 4906 |
| RAINBOW HILL | 0251)827 2111 |
| RANCAMAYA | 0251)824 2282 |
| RAWAMANGUN | 475 4732 |
| ROVER SIDE | 867 1533 |
| ROYAL JAKARTA | 8088 4488 |
| SAWANGAN BARU | 740 2194 |
| SEDANA | 0267)644 730 |
| SENTUL HIGHLAND | 8796 0266 |
| TAKARA | 599 1227 |

• **골프교습**

| | |
|---------------|--------------|
| Easy Golf | 801 2048 |
|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 392 178 |
| 골프투어 자카르타 | 7013 8166 |
| 심스골프 | 570 3063 |
| 배준원골프교실 | 781 7679 |
| PGA골프레슨(까라와찌) | 5577 8936 |
|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 0811 143 437 |

• **골프샵**

| | |
|---------------------|-------------|
| 교민프로골프샵 | 5577 1006 |
| 따만사리골프샵 | 546 0838 |
| 레네세계골프 | 739 8312 |
| 한양(골라빠가딩) | 450 4364 |
| EFC Golf | 725 0057 |
| 혼마플레이골프 | 344 2540 |
| MFS골프 | 725 0057 |
| Play Golf | 722 9587 |
| 월드 | 552 7434 |
| Bridgestone Golf | 7279 8123 |
| Love Green Halim | 8778 2771~2 |
| Love Green Cikarang | 8990 7881 |

• **동문회**

• **중/고교**

| | |
|--------------|----------------|
| 강경상고(민병무) | 0818 879 149 |
| 경기고(구본찬) | 780 0204 |
| 경남공고(이봉규) | 0812 902 3800 |
| 경남중고(정낙헌) | 0813 8293 8557 |
| 경동고(강성원) | 0812 8830 8566 |
| 경북고(노경인) | 0815 1901 0575 |
| 경북고(이병수) | 0816 181 3615 |
| 경성고(박영권) | 0813 8805 1296 |
| 경신고(김진태) | 7883 6372 |
| 경주중고(김홍규) | 0818 141 635 |
|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 0815 1428 9329 |
| 계성고(최상록) | 0811 249 038 |
| 광주고(선홍규) | 0813 1536 5223 |
| 광주 사레시오중고 | 548 5112 |
|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 527 0150 |
| 광주 금호고 | 0815 1903 5802 |
| 광주 진흥고(박호섭) | 0812 6666 3338 |
| 남성중고(임석균) | 515 9277 |
| 대구고(김현철) | 0818 718 535 |
| 대구대륜고(김우기) | 0812 8763 9907 |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오롬컨설팅
PT. 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um@gmail.com T:(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visa.orumchris@gmail.com

woori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URI TOUR & TRAVEL **우리투어**

Tel : 021-794-0422 / 021-7919-9201
HP : 0811-1742-081
Katalok ID : uritour88
Email : master@uritour.org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DEM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el:(021) 4587 8833 Fax:(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 | |
|---------------|----------------|
| 대구 상고(김진우) | 825 0581 |
| 대구 영남고(오승현) | 0858 4653 6899 |
| 대광중고(이민규) | 0816 880 018 |
| 대원외고(권기훈) | 0877 7779 4668 |
| 대전고(윤내선) | 426 2954 |
| 덕수고(성기운) | 0816 114 7364 |
| 동대문상고(곽기석) | 867 3837 |
| 동래고(박형남) | 0819 555 3456 |
| 동성고(홍창형) | 0812 102 2670 |
| 동아고(여병철) | 0811 187 554 |
| 동인고(차명훈) | 0815 950 0461 |
| 마상고(김만수) | 0811 122 5239 |
| 목포중고(김용진) | 568 0517 |
| 배재학당(이성수) | 0815 1428 0295 |
| 배정고(김상훈) | 0817 659 9473 |
| 보성고(김유호) | 5940 1282 |
| 보성교우회(박지배) | 0811 976 537 |
| 부산기고(채윤규) | 026 751 2483 |
| 부산 동고(이동훈) | 0811 190 7967 |
| 부산상고(박갑수) | 0812 952 5404 |
| 부산 중앙고(송명석) | 0811 834 412 |
| 부산고(조명국) | 0811 1046255부 |
| 산 외고(선진세) | 0813 8536 8434 |
| 서울고(이상열) | 0811 916 953 |
| 서울 대신고(서영석) | 0813 1139 7145 |
| 선린상고(김기석) | 0817 648 9321 |
| 성남고(성기채) | 0815 1070 2424 |
| 성동고(구본욱) | 025 161 1466 |
| 성원고(강변창) | 0811 891 458 |
| 수원 유신고(안성욱) | 0813 1626 7777 |
| 순천 중고(김정욱) | 0815 1932 9650 |
| 송문고(김영언) | 0816 937 269 |
| 신일고(금민철) | 0816 864 677 |
| 심인고(김종필) | 0815 1305 4150 |
| 안양공고(조한영) | 0812 859 8483 |
| 양정고(이종환) | 0815 1033 1001 |
| 여수고(유병관) | 0818 479 862 |
| 영등포고(정하승) | 0811 140 334 |
| 오산고(조동혁) | 0815 7432 7769 |
| 용산고(박승래) | 0813 1842 1269 |
| 유한공고(이선용) | 0812 071 210 |
|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 0818 912 698 |
| 여수고(유병관) | 0818 479 862 |
| 영남고(오승현) | 0858 4653 6899 |
| 전주고(남택열) | 0811 877 108 |
| 정석항공고(백승엽) | 0811 903 144 |
| 중동고(김일태) | 0812 1922 1462 |
| 중앙고(정재익) | 0811 910 013 |
| 진주 대아고(김영진) | 5522 0041 |
| 청주고(조영선) | 0815 1901 4477 |
| 충남고(이수현) | 0811 175 126 |
| 한성고(박창화) | 0816 912 302 |
| 해광고(서동희) | 0813 9839 9286 |
| 휘문고(맹중호) | 0818 973 986 |

● **대학교**

| | |
|-----------------|----------------|
| 강원대(송영석) | 0812 1326 5977 |
| 건국대(조선용) | 0811 910 6707 |
| 경기대(박호섭) | 0858 76506040 |
| 경북대(이준혁) | 0811 880 401 |
| 경희대(양승민) | 0811 164 367 |
| 계명대(추교일) | 0813 1824 5952 |
| 고려대(안재완) | 0812 819 82252 |
| 공군 장교단(정태훈) | 0811 9891 403 |
| 부경대(서동윤) | 0813 8568 1122 |
| 동국대(염정운) | 0817 681 8599 |
| 동아대(서종근) | 0811 850 212 |
| 목포해양대(이종재) | 08111 975 205 |
| 부산대(유제상) | 0811 841 510 |
| 부산외대(이동훈) | 0816 781 564 |
| 서강대(이철우) | 08121177399 |
| 서울대(정무웅) | 797 5959 |
| 성균관대(김진태) | 0818 953 949 |
| 숙명여대(서영자) | 0815 1324 2799 |
| 송실대(김학수) | 0811 879 701 |
| 아주대(서보상) | 0815 1902 4220 |
| 연세대(금민철) | 0816 864 677 |
| 영남대(김상수) | 0812 103 8707 |
| 영산대(최재혁) | 590 0401 |
| 울산대(최재호) | 723 0917 |
| 이화여대(김미송) | 0811 122 0566 |
| 인하대(이기홍) | 0816 812 507 |
| 전남대(최병욱) | 0816 188 1233 |
| 전북대(최성호) | 0815 7232 3689 |
| 중앙대(최일형) | 0813 1129 8822 |
| 충남대(노제익) | 452 6968 |
| 충북대(최병인) | 0817 778 857 |
| 한국외대(최재광) | 0811 968 478 |
| 한국해양대(이승준) | 0811 190 7718 |
| 한양대(신송호) | 0813 8981 5656 |
| ROTC(사무국장: 김성일) | 0811 805 606 |
| 육군학사장교(김상진) | 0812 8779 9035 |

● **은행**

| | |
|-------------|-----------|
| 수출입은행 | 525 7261 |
| KEB 하나은행 본점 | 522 0223 |
|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 2995 1915 |
| 신한은행 | 2975 1500 |

● **가구**

| | |
|-----------|----------------|
| 쥬지언 퍼니처 | 2276 6887 |
| 아이니갤러리 | 581 4690 |
| 올댓티크 원목가구 | 0858 8831 1218 |
| 로만 인테리어 | 0811 847 699 |
| 그린 가구 | 0813 1000 8778 |

● **건강식품/건강원**

| | |
|-------|--------------|
| 경동건강원 | 7028 4262 |
| 고려건강원 | 081 690 3990 |



Law Firm
INDOYANG & PARTNERS
법무법인 인도양

강력한 변호사 팀 / 확실한 법적 해결
 형사 · 민사 · 세무 · 투자 · 국적

김종성(변호사/ 대표Partner): UI대 법대졸, UI대 법대 대학원졸

HP : 0815-8690-3000 Email : cskim@indoyanglaw.com 또는 cskim.indoyanglaw@gmail.com

Korea Center Building, Suite 605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Indonesia Telp : 62-21-5273077 / 8 Fax : 62-21-5207212

| | |
|---------|-----------|
| 한국건강원 | 5579 6411 |
| 솔진생코리아 | 7278 8287 |
| 이름황성주생식 | 5296 1522 |

● 국제전화 서비스

| | |
|--------|-----------|
| 글로벌링 | 725 1606 |
| 넥스텔링크 | 525 3187 |
| 데이콤 | 720 7551 |
| 킹폰 | 574 0888 |
| 현대 텔레콤 | 5579 1226 |

● 건설 / 설비 전기

| | |
|-----------------|-------------|
| DASOM Indonesia | 2940 3042/5 |
| 건설 중장비 렌탈 | 08111 43437 |

● 꽃/화환

| | |
|--------|----------------|
| 꽃과 좋은날 | 0811 846 174 |
| 나무플라워 | 0812 1314 2681 |

● 기타

| | |
|-------------------|----------------|
| 에셀비틱 | 0813 1038 4812 |
| 마음수련 | 722 1600 |
| 바람소주 | 0858 8831 1218 |
| 스폰지 | 7095 4771 |
| 아시아 진주 | 7278 8327 |
| Good Deal Gallery | 573 6233 |
|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 0813 9861 1388 |

● 노래방

| | |
|-----------------|--------------|
| 팡팡노래방 & 치킨 | 720 7275 |
| Beat Box(플라빠가딩) | 9773 4780 |
| IDOL가라오케(땅그랑) | 021 546 0840 |

● 렌트카/기사클럽

| | |
|-------|---------------|
| 강남렌트카 | 0812 109 7631 |
| 서울렌트카 | 6870 9335 |
| 우리렌트카 | 0811 193 069 |

| | |
|--------|-----------|
| 한성렌트카 | 889 0471 |
| 짱구기사클럽 | 7279 8233 |
| 링크렌트카 | 9583 1000 |

● 미용실/피부관리

| | |
|---------------------|-----------|
| 갤러리 J | 725 2856 |
| 국제이용원 | 739 6129 |
| 뷰티 # | 520 4428 |
|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 547 5867 |
| 아마란스화장품 | 723 1537 |
| JR SALON | 7279 7906 |
| Hair Perm | 7280 1404 |
| 닥터큐(피부미용) | 5696 7090 |
| 자르헤어 | 7279 6998 |
| Salon & Beauty Shop | 7278 6969 |

● 변호사 사무소

| | |
|---------------|-----------|
| 이승민 법률사무소 | 525 5959 |
| P.A.K. 변호사사무실 | 797 6254 |
|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 520 7153 |
| K LAW 변호사 사무소 | 5785 3271 |
| 법무법인 인도양 | 527 3077 |

● 부동산

| | |
|-----------|----------------|
| 그린 부동산 | 726 4949 |
| 2005뉴밀레니움 | 7082 0056 |
| 리츠부동산 | 6896 7249 |
| 대한부동산 | 0813 1447 6593 |
| 한국부동산 | 0811 876 204 |
| 대박부동산 | 08111 555 615 |

● 방송사

| | |
|--------------|----------|
| KABLE VISION | 527 8811 |
| INDOVISION | 581 9988 |

● 병원

| | |
|-------|----------|
| 관준한의원 | 739 7854 |
|-------|----------|

| | |
|-----------------------|-----------|
| 뉴월드메디칼 | 7279 3809 |
|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 7280 1819 |
| 실로암 한의원 | 720 1779 |
| 서울메디칼 클리닉 | 799 1333 |
| 신농씨한방병원 | 7278 0563 |
| 아름다운 병원 | 720 7628 |
|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 725 3458 |
| 향림당 한방병원 | 720 7727 |

Indo Dental 치과의사 정해정

0815 1004 2004

| | |
|------------------|----------------|
| RS. BUNDA | 322 0005 |
| RS. GRAHA MEDIKA | 530 0887 |
| RS. MEDISTRA | 521 0200 |
| RS. M.M.C | 522 5201 |
| RS. PONDOK INDAH | 765 7525 |
| RS. Siloam (땅그랑) | 546 0055 |
| RS. Siloam (찌까랑) | 8990 1911 |
| Matahari Klinik | 722 6391 |
| Dokter Korea | 0815 8539 7777 |

● 슈퍼마켓

| | |
|------------|----------------|
| 뉴서울슈퍼 | 725 0520 |
| 뉴부산슈퍼(땅그랑) | 5940 0375 |
| 만나슈퍼(버까지) | 821 8705 |
| 무궁화본점 | 722 2214 |
| 플라빠가딩점 | 021 723 3214 |
| 무궁화땅그랑점 | 558 2214 |
| 무궁화찌까랑점 | 0851 0075 2214 |
| 무궁화다르마왕사점 | 723 3214 |
| 무궁화뽕독인다점 | 7590 5488 |
| 무궁화수라바야점 | 031-563 4645 |
| 무궁화스마랑점 | 024-7640 4783 |
| 무궁화짚레곤점 | 054-987 1049 |
| 무궁화반동점 | 028-8200 1674 |
| 무궁화죽자점 | 0815 4880 0256 |
| 무궁화마카사르점 | 0811 460 678 |
| 우리슈퍼(버까지) | 8240 4575 |
| 월드마트 | 8430 2535 |
| 하나마트 | 8459 0064 |
| 한일마트 | 723 2086 |
| 한일마트(땅그랑) | 5577 8633 |
| G-마트(찌부부르) | 8459 9858 |
| K-마트 | 2277 5526 |

● 식당

| | |
|------------|----------------|
| 하나 | 0254-393 2146 |
| 가나레스토랑 | 0811 918 132 |
| 가야성 | 725 7373 |
| 가호(SCBD 점) | 5289 7044 |
| 강남 | 0812 2323 5119 |
| 강남스타일 | 2952 8443 |
| 김균 고기고기 | 726 4999 |
| 김삿갓 | 722 2230 |
| 대가 | 8459 2871 |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교민여러분과 25년을 함께 해 온
가구 인테리어 전문회사



로만인테리어

사무실/아파트/주택/매장/업소
공장/기숙사
가구, 키친세트, 인테리어
각종 리노베이션 상담

Showroom/Office:
Jl. RS Fatmawati No. 21A, Cipete Jakarta Selatan
Tel: (021) 766 2519 한국인직통 0811-847-699
카톡 ID: limbs521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김균

고기고기
밴드(김균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



데일리 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 | | |
|---------|----------|-----------|
| 대감집 | 723 | 3315 |
| 대화 | 720 | 6091 |
| 락 | 5793 | 9211 |
| 마포 | 7279 | 2479 |
| 맛집칼국수 | 0821 | 1096 3483 |
| 명가면옥 | 0254-849 | 3571 |
| 면의전설 | 521 | 0230 |
| 명가면옥 | 2751 | 0800 |
| 미가 | 0818 | 85 8026 |
| 미스터 박 | 5140 | 1142 |
| 버까시 서울 | 8895 | 7604 |
| 베다니1호점 | 9318 | 0458 |
| 베이징 | 0254-837 | 0242 |
| 보신명가 | 789 | 0220 |
| 본가 | 739 | 6229 |
| 삼원가든 | 2988 | 9505 |
| 설악추어탕 | 722 | 1852 |
| 소래포구 | 8990 | 5051 |
| 아랑22 | 5140 | 1245 |
| 아리정 | 739 | 6549 |
| 우장군 | 725 | 6181 |
| 청기와 | 726 | 1924 |
| 청담가든 | 0815 | 7342 5802 |
| 청해수산 | 527 | 8721 |
| 토박 | 725 | 1135 |
| 하누 | 725 | 5042 |
| 한강가든 | 0813 | 1988 5751 |
| 한양가든 | 2751 | 7370 |
| 이가네 | 6669 | 5500 |
| 한옥 | 0254-385 | 588 |
| 강산 | 2452 | 0569 |
| 깜닭 | 4584 | 5837 |
| 다미 | 4585 | 0040 |
| 대장금 | 0816 | 885 956 |
| 마포갈매기 | 0812 | 9313 9503 |
| 명가면옥 | 8990 | 4552 |
| 미스터 사시미 | 4585 | 3484 |
| 미추홀 | 6583 | 1472 |
| 산정(찌까랑) | 2909 | 3454 |
| (땅그랑) | 547 | 3172 |
| 서울 | 4585 | 4454 |
| 설악추어탕 | 2937 | 5435 |
| 송가네삼계탕 | 4585 | 4422 |
| 야래향 | 4584 | 8476 |
| 황금밥상 | 4585 | 3402 |
| 감미옥 | 5579 | 4612 |
| 강나루 | 5576 | 8222 |
| 강촌 | 5579 | 3681 |
| 꼬꼬따리아 | 0254 | 394 255 |
| 대가야 | 547 | 5511 |
| 명가면옥 | 552 | 2745 |
| 산들 | 5579 | 5821 |
| 상하이 | 5573 | 5550 |
| 산해진미 | 5577 | 8182 |

| | | |
|------------|----------|-----------|
| 서울일식 | 546 | 0840 |
| 아리수 | 0254-781 | 0059 |
| 알리사 | 0254-60 | 1430 |
| 오리랑장어랑 | 5577 | 6457 |
| 우리들 | 552 | 4047 |
| 조선민물장어 | 5573 | 3308 |
| 종가레스토랑 | 551 | 3273 |
| 청기와 | 0858 | 1377 3388 |
| 체어맨 | 5577 | 8585 |
| 태능갈비 | 7055 | 0888 |
| 테라스 가든 | 8493 | 9321 |
| 한마당 | 5577 | 6770 |
| 산정 까라와치 | 547 | 3172 |
| 산정 찌까랑 | 2909 | 3000 |
| 산정 까북 | 3005 | 1650 |
| 요리가 | 4584 | 4502 |
| 유가네 | 2221 | 3392 |
| 본가 (족자카르타) | 0274 | 2831440 |
| 치맥 (족자카르타) | 0274 | 2831869 |

● **신문**

| | | |
|--------------|------|------|
|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 520 | 7207 |
| 조선일보 | 2930 | 6886 |
| 중앙일보 | 7590 | 8308 |
| 한국일보 | 769 | 1081 |
| 한인포스트 | 4586 | 9199 |
| JAKARTA POST | 530 | 0476 |
| 자카르타경제신문 | 5290 | 0117 |

● **안경원**

| | | |
|-------|-----|------|
| 시티안경원 | 726 | 5009 |
|-------|-----|------|

● **여행사**

| | | |
|-----------------|------|-----------|
| 나래여행 | 5296 | 0749 |
| 하나족자트래블 | 0274 | 887 488 |
| 굿데이투어 | 4586 | 0598 |
| 그린관광 | 798 | 3322 |
| Red Cap | 5797 | 3397 |
| Rodem Tour | 4587 | 8833 |
| 마타아리 여행사 | 521 | 2212 |
| 부미관광 | 7279 | 0011 |
| 비자여행 Malaysiaro | 603 | 9274 1780 |
| 솔로몬투어 | 0813 | 1934 1000 |
| 싱가폴투어(비자) | 2903 | 6647~50 |
| 스카이트투어 | 391 | 1381 |
| 우리투어 | 7918 | 4239 |
| 153 TOUR | 5720 | 153 |
| 코리아트래블 | 230 | 3116 |
| 코인관광 | 720 | 7230 |
| 하나관광 | 520 | 2450 |
| 호산여행사 | 691 | 3602 |
| HAPPY TOUR | 2950 | 8903 |
| Inko Batam(바탐) | 0778 | 462 500 |
| 사랑투어 | 2912 | 5099 |

● 종교 단체

| | | |
|-----------|------|------|
| <기독교> | | |
| 꿈이있는교회 | 548 | 3044 |
| 늘푸른교회 | 766 | 9191 |
| 동부교회 | 4587 | 7317 |
| 연합교회 | 7279 | 5625 |
| 예사랑침례교회 | 4176 | 5140 |
| 소망교회 | 739 | 6487 |
| 순복음교회 | 739 | 2373 |
| 안디옥교회 | 751 | 5525 |
| 열방교회 | 552 | 5164 |
| 열린교회 | 844 | 5537 |
| 위자야한인교회 | 7279 | 3145 |
| 자카르타사랑의교회 | 450 | 7324 |
| 주님의교회 | 831 | 3843 |
| 중앙감리교회 | 533 | 2749 |
| 짜카람임마누엘교회 | 8990 | 3133 |
| 참빛교회 | 718 | 3535 |
| 한마음교회 | 739 | 5035 |

● 인니어통역/번역

| | | | |
|----------|-----|-----|------|
| Mrs. Lee | 021 | 743 | 2687 |
| CITRA | | 781 | 7771 |

● 의료가

| | |
|-------------------|-------------|
| PT. CGM INDONESIA | 08119593111 |
|-------------------|-------------|

● 인터넷

| | | |
|-------------------|------|------|
| HANASTAR INTERNET | 2270 | 8282 |
| S-Net | 7080 | 7886 |

● 인테리어

| | | |
|---------------|------|-----------|
| AEGIS BLIND | 2943 | 3876 |
| H2 Stuff | 4586 | 7860 |
| KJ건축 인테리어 | 0821 | 2564 1777 |
| Living A&I | 7278 | 0704 |
| 로만인테리어 | 0811 | 847 699 |
| 아이니인테리어 | 0812 | 1928 5578 |
| 그린 인테리어 | 0813 | 1000 8778 |
| INNOMATE | 7919 | 2006 |
| 올댓테크 원목가구 | 0858 | 8831 1218 |
| INPLAN DESIGN | 0857 | 1198 6516 |

● 운송 해운 이삿짐

| | | |
|--------------|------|------|
| 소명통관 | 4585 | 9283 |
| 센다이 이주화물 | 8770 | 6361 |
| 아네카 트란스 | 520 | 4181 |
| 트란스 우따마 | 829 | 6218 |
|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 5591 | 5770 |
|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 2902 | 3838 |
| CARGO PLAZA | 831 | 7779 |

<천주교>

| | | |
|---------------|------|---------|
| 한인성요셉성당 | 7884 | 3782 |
| (짜카람 공소) | 8911 | 7547 |
| <불교> | | |
| 조계종 능인정사 | 724 | 7261 |
|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 765 | 6036 |
| (동부자바포교원) | 0818 | 333 491 |
| 법연종 법연원 | 720 | 8607 |
| 조계종 고려정사 | 724 | 3571 |
| <이슬람> | | |
|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 871 | 6906 |

| | | |
|-------------------|------|------|
| DHL | 7919 | 6677 |
| FIRSTINDO EXPRESS | 5296 | 0024 |
| PANTOS LOGISTICS | 8998 | 2855 |
| HAES IDOLA CARGO | 8591 | 8488 |
| HANINDO EXPRESS | 252 | 5123 |
| KORNET LOGISTICS | 8379 | 3455 |
| QCN | 7884 | 1550 |
| Wings Global | 4585 | 8053 |
| ZIMMOAH | 2937 | 5670 |
| WIKASA | 8379 | 1935 |

● 자동차 정비소

| | | |
|------------|-----|------|
| 벵켈 코리아 모터스 | 885 | 4034 |
|------------|-----|------|

● 증권/보험

| | | |
|----------|------|-----------|
| 삼성화재 | 021 | 8062 2000 |
| 우리코린도증권 | 797 | 6210 |
| 클레몽종합금융 | 797 | 6363 |
| 메리츠코린도보험 | 797 | 5959 |
| 키움증권 | 5010 | 5800 |
| KDB 대우증권 | 515 | 1140 |

| | | |
|--------|------|-------|
| KB손해보험 | 3199 | 0247 |
| 한화생명 | 727 | 88150 |

● 컨설팅

| | | |
|----------------|------|-----------|
| 오롬컨설팅 | 4585 | 4910/11 |
| 럭키비자 | 0813 | 1133 2122 |
| 글로벌컨설팅 | 7280 | 0524 |
| 두왕컨설팅 | 520 | 7153 |
| 우리컨설팅 | 7918 | 4239 |
| 컨설팅 21 | 799 | 6182 |
| 한생컨설팅 | 5290 | 0670 |
| KMAQA (ISO인증원) | 573 | 1576 |
| 비엔시 컨설팅 | 2278 | 0470/4013 |
| 한국컨설팅 | 0811 | 876 204 |

● 인재채용

| | | |
|--------------------|-----|------|
| OSSelnajaya(세르나자야) | 572 | 7214 |
|--------------------|-----|------|

▶▶▶

안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ICHTHUS
SCHOOL**

PRIMARY | SECONDARY | PRE - UNIVERSITY

ACCREDITED
Fully Accredited by
OWASC

UNIVERSITY OF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UNIVERSITY OF EDINBURGH
UNIVERSITY OF MANCHESTER



**FINAL
OPEN
HOUSE**

▶ Ichthus West Campus
Sat, 4 April 2020

▶ Ichthus South Campus
Sat, 18 April 2020

www.ichthusschool.com



Scan for
Inquiry

West Campus
T: +6221 581 2228

South Campus
T: +6221 7590 8850

Ichthus Schools 

Ichthus School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C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수출·무역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 컴퓨터, IT

| | |
|---------------------|---------------|
| 리콤컴퓨터 | 725 1606 |
| 컴퓨터 원 | 5576 5228 |
| 지텍컴퓨터 | 5696 7001 |
| 하나로정보통신 | 9260 0950 |
| 한비텔 | 8379 1144 |
| 인도웹 www.indoweb.org | 0811 888 9609 |

● 택시

| | |
|-------------|----------|
| SILVER BIRD | 798 1234 |
| BLUE BIRD | 794 1234 |

● 하숙

| | |
|---------------|----------------|
| 경복궁 하숙(리뽀찌까랑) | 081314157581 |
| 가딩 홈스테이 | 9661 5877 |
|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 0858 1341 3222 |
|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 0813 1514 9978 |
| 나인비즈니스 하숙 | 9940 5005 |
| 둥지 하숙 | 3608 9316 |
| 리뽀찌까랑 하숙 | 0812 1066 7757 |
| 레저 게스트하우스 | 0811 143 437 |
| 모나리자 | 8990 9570 |
|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 0813 8059 1625 |
|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 0821 1336 1111 |
| 쉴터 하숙 | 726 8775 |
|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 0815 1780 3680 |
| 이모네 하숙 | 0818 964 946 |
| 엘지 게스트하우스 | 0812 100 7135 |
| 위자아 게스트하우스 | 0815 1024 8888 |
| 한발 | 830 9990 |
| 한올타리 | 739 5841 |
|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 723 8302 |
| 현대 하숙 | 0818 795 787 |

● 학원/교육업

| | |
|-----------------|----------------|
|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 546 4531 |
| 뮤직아카데미 | 0811 9103 108 |
| 에세드라아트스쿨(리뽀찌까랑) | 546 4531 |
| 예원 | 720 8783 |
| 종로학원 | 7883 5202 |
| 토마토미술 | 723 3699 |
| | 0817 9876 950 |
|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 0813 989 22222 |
| 하이스트학원 | 720 2022 |
| 해동검도 | 522 7204 |
| 해보다외국어학원 | 0888 843 0415 |

● 항공

| | |
|----------------------|---------------|
| 대한항공 (시내) | 521 2180 |
| (터미널3) | 8082 2198/9 |
| GARUDA (Call Center) | 2351 9999 |
| | 0804 1807 807 |

| | |
|--------------|-----------|
| 아시아나 항공 (시내) | 5098 6112 |
| (공항지점) | 5591 3229 |
| 싱가폴 항공 | 570 4411 |

● 호텔

| | |
|--------------------|----------------|
| 그랜드멜리아 | 526 8080 |
| 만다린 | 314 1407 |
| 몰리아 | 574 7777 |
| 샹그릴라 | 570 7440 |
| 싸이드자야 | 570 4444 |
| 하야트 | 390 1234 |
| 크라운플라자 | 526 8833 |
| 솔탄 | 573 8011 |
| GSI Hotel & Resort | 0858 8248 3211 |
| 자바 팔레스 | 2928 1111 |

● 환전

| | |
|----------|----------------|
| 굿-머니 | 5793 9990 |
| 그린환전소 | 0815 1423 0114 |
| 플라빠가징 | 453 1166 |
| 사강머니체인저 | 5290 0233 |
| 위나머니체인저 | 7278 0929 |
| 뚜나스신암 | 797 6105 |
| 참피온머니체인저 | 4585 1158 |
| 환전 | 712 8556 |

발 리 (지역번호 0361)

● 항공

| | |
|-----------|---------|
| 대한항공(KAL) | 768 377 |
|-----------|---------|

● 종교단체

| | |
|------|---------|
| 한인교회 | 462 222 |
|------|---------|

● 슈퍼마켓

| | |
|--------|---------|
| 한국슈퍼마켓 | 281 929 |
|--------|---------|

● 여행사

| | |
|----------------------|----------|
| B.J.C TOUR | 284 365 |
| BALI DAMAI TOUR | 764 864 |
| BALI HARMONY TOUR(A) | 744 1815 |
| BALI STAR TOUR | 868 8287 |
| BALI TAP TOUR | 860 4977 |
| MANGOCAKE | 745 4229 |
| DREMLAND TOUR | 745 1961 |
| KOURUS TOUR | 744 7200 |
| NUSA TOUR | 285 122 |
| ITOUR | 261 105 |
| MATAHARI KOREAN TOUR | 703 479 |
| PDTOUR | 763 845 |
| PENJOR TOUR | 727 800 |
| T.N.B TOUR | 808 9000 |
| UNION TOUR | 745 4419 |

| | |
|---------------------|----------|
| SUDINA TOUR | 744 2121 |
| SPIRIT TOUR | 780 2340 |
| KOREA TRAVLER | 756 899 |
| V.I.P. 여행사 | 762 090 |
| WORLD RESORT CENTER | 778 218 |
| WEDDING TOUR | 745 3650 |

● 식당

| | |
|------------|----------------|
| 그릴하우스 | (0361) 710 374 |
| 꼬끼레스토랑 | 770 256 |
| 대장금(SANUR) | 918 1888 |
| 부가 | 805 1212 |
| 한일관 | 727 250 |

● 서비스업

| | |
|-----------------------|----------|
| - 빌라, 호텔 | |
| BEVERLY HILLS VILLA | 848 1800 |
| BALI DIARY HOTEL | 499 282 |
| DREAM LAND VILLA | 708 199 |
| OCEAN BLUE BALI VILLA | 776 700 |
| LAVENDER HOTEL | 752 961 |
| VILLA DOWNTOWN | 736 464 |
| ASIS VILLA | 862 8777 |

● 기타서비스업

| | |
|--------------------------|---------------|
| I.N.I.L | 720 999 |
| INKO CLUB | 722 431 |
| HALLO BALI | 723 593 |
| SIMPANG SIUR | 761 313 |
| AVENUE | 762 327 |
| ASIS (NUSADUA) | 770 256 |
| ASIS (SANUR) | 287 257 |
| CLUBBER | 766 340 |
| BALI FINE | 852 8881 |
| BALI TEGEHE AGUNG | 298 643 |
| SUN JEWELLERY | 761 537 |
| BALI DEWATA | 285 501 |
| CHIPPENDALE FURNITURE | 812 570 |
| SAMMA | 815 310 |
| BALI PROPERTY CONSULTING | 264 086 |
| SHINY HAIRSHOP | 766 304 |
| 카리스(특피전문백) | 0811 998 1637 |

반둥 (지역번호 022)

| | |
|-----------|----------------|
| 반둥 아름다운교회 | 201 3184 |
| | 0813 2233 0119 |
| 반둥 반석교회 | 201 5022 |
| 한국인교회 | 201 4052 |

● 식당

| | |
|--------|------------|
| 뉴캐슬식당 | 201 5007~8 |
| 명가레스토랑 | 200 7363 |
| 코리아하우스 | 203 1626 |
| 한국관 | 204 3069 |



NITAKA TOKYO
- hair salon -



Hair | Nail | Spa | Make Up

20% First Time Customers
from Hanin News

 [nitaka.tokyo](https://www.nitakatokyo.com)
www.nitakatokyo.com
 +6221 7278 8787
 +62 8212 3003 809

2nd Floor Jl Gunawarman No 71
(near Senopati)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 서비스업

| | |
|---------|----------------|
| 뉴캐슬사우나 | 201 5007~8 |
| 반둥렌트카 | 0858-1111-4000 |
| 반둥한인부동산 | 0858-1111-4000 |
| 반둥컴닥터 | 0821-2222-6000 |

어떤 모양을 통해
목적한 기능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디자인의 본질 아닐까요?
디자이너라면 뭐든지 해결해드립니다!

PT.EOK ECO INDONESIA

인 테 리 어
익 스테 리 어
경 관 조 명
간 판

- 디자인 / 설계 / 제작 / 시공 -
Tel. 021-7919-2426
M. 0852-8511-3888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지역한인회

현재 2019. 8

| 번호 | 지역한인회 | 직 위 | 성 명 | 휴대폰 |
|----|-------------------------------------|-------|-------|----------------|
| 1 | 발리한인회 | 회장 | 윤 경 희 | 0811-385-841 |
| | | 수석총무 | 최 경 희 | 0812-380-6288 |
| | | 총무 | 송 학 자 | 0812-362-3000 |
| | | 고문 | 김 갑 수 | 0811-394-552 |
| | | 총무 | 손 민 석 | 0858-5732-0669 |
| 2 | 반둥한인회 [022) 200-2154] | 회장 | 편 대 영 | 0813-2145-7997 |
| | | 사무국장 | 윤 재 웅 | 0813-1921-5720 |
| 3 |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 회장 | 공 자 영 | 0811-691-826 |
| | | 수석부회장 | 주 정 만 | 0812-704-5030 |
| | | 사무국장 | 정 규 철 | 0812-701-6090 |
| | | 총무 | 이 상 구 | 0821-7356-8405 |
| 4 | 보고르한인회 | 회장 | 이 철 춘 | 0811-112-179 |
| | | 총무 | 임 성 필 | 0819-707-107 |
| 5 | 메단한인회 | 회장 | 홍 상 철 | 0811-608-724 |
| | | 총무 | 손 근 환 | 0812-655-9418 |
| 6 | 수카부미한인회 | 회장 | 김 흥 기 | 0811-111-5208 |
| | | 부회장 | 최 종 섭 | 0811-114-2163 |
| 7 |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8690] | 회장 | 이 경 윤 | 081-732-1833 |
| | | 수석부회장 | 김 태 현 | 0818-321-332 |
| | | 사무국장 | 우 상 화 | 0817-500-1042 |
| | | 총무 | 배 기 보 | 0812-3251-5518 |
| 8 |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024) 7648-2020] | 회장 | 유 성 천 | 0812-2867-994 |
| | | 수석부회장 | 임 종 학 | 0813-2525-7777 |
| | | 사무총장 | 문 성 구 | 0811-275-080 |
| | | 수석총무 | 양 재 삼 | 0812-9323-8002 |
| 9 | 족자카르타한인회 | 회장 | 유 치 호 | 0813-9251-5050 |
| | | 총무 | 조 용 재 | 0815-4880-0256 |
| 10 | 즈파라한인회 | 회장 | 김 신 | 0812-2991-588 |
| | | 수석총무 | 조 영 성 | 0813-9032-3355 |
| | | 총무 | 양 세 환 | 0822-2719-9135 |
| 11 | 땅그랑반뜰한인회 [0821-8166-6137] | 회장 | 채 만 용 | 0813-8621-5850 |
| | | 사무국장 | 허 미 숙 | 0818-660-732 |
| 12 | 마카사르슬라웨시 한인회 | 회장 | 이 재 호 | 0811-444-190 |
| | | 총무 | 한 정 곤 | 0811-419-200 |
| 13 | 롬복 한인회 | 회장 | 박 태 순 | 0812-378-9841 |
| 14 | 칼리만탄 한인회 | 회장 | 정 성 화 | 0821-5497-9998 |
| | | 수석부회장 | 나 성 문 | 0811-5064-579 |
| | | 사무총장 | 배 성 운 | 0813-7180-6330 |

We are anywhere you are!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Leading
Logistic
Provider**

4PL

항공, 해상운송

Warehousing

Exhibition Goods

물류 컨설팅

물류 OS

Trading & Hubbing (BWT)



www.sticorp.co.kr

THEP

TRASINDO

SAMINDO

PSG

CEP

SBS

DONGHAE

SIMS

Synergy for Tomorrow
삼탄이 **ST** International 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ST International

Yeong Yang
Wind Power

MINTEC

SRT

ABM

KIDECO

